

## 마태복음 맥잡기 1

### A. 신약성경 개관

구원받은 뒤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심히 많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눅24, 부활 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됨, 주님의 말씀(25-27), 그들의 증언(32)

2018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신약성경 맥잡기, 목표(24:45)

성도들이 해야 할 일(행17:11), 성경기록들 탐구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신약성경 개관, 사복음서 개관, 마태복음 개관, 그리고 28장까지 맥잡기 대다수 성도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의 책에서 넘어진다.

변천기 책들 혹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인 책들

언제부터 신약 시대인가?(히9:16-17)

신약 27권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을 담고 있다.

변천하는 역사 기록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 사도행전: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

공관복음(Synoptic gospel): 공관(synoptic)이란 같은 개요(구성)를 가졌다는 말이다.

공관복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개요를 가지고 기록했다.

다만 주제와 대상이 다르다.

마태(유대인 대상, 메시아, 주후 60년경), 마가(로마 교회의 이방인 대상, 고난 받는 종, 주후 60년경),

누가(그리스 사람 대상, 사람의 아들 구원자, 주후 65년경), 이것들은 순전한 역사서이다.

사도행전(주후 65년경)

이 외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사도 바울의 서신: 교회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유다서 등의 일반 서신: 물론 교회 대상, 히브리 색채가 강함

요한복음: 주후 90년경,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요3:16; 20:30-31). 공관복음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요한123서: 영지주의 이단 교리에 대응하기 위해(요일5:20)

요한계시록: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미래 사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죽은 자들의 심판 주의 사항: 신약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구약성경: 돼지 고기, 유월절 어린양 희생,

교회는 마16:18에서 앞으로 이 땅에 생길 것으로 예언되었고 오순절에 처음 이 땅에 나타났다.

구약 시대, 예수님 지상 사역 기간에는 교회가 없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롬15:8-9, 눅1:30-33; 67-75; 눅2:25, 34; 38 등)

마태복음: 유대인 주 대상(이방인들로 넘어감), 마10:5-7, 마28:19-20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투스주석성경 이사야서 등을 보면 교회가 나온다. 이런 것은 모두 칼빈주의 언약신학에서 나온 것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다.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하나님의 열심: 마21:33-44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창3:15).

인류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종적인 계획을 수행하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

이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육신을 입으셔야만 한다(히2:14-18).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지 발견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다(마23:37-39).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형성된다(롬11:11-12).  
이스라엘의 미래(롬11:25-26)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다. 아직 구약 시대이다(갈4:4-5)  
40번째 책: 40은 성경에서 대부분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40년 광야 생활, 사십 일 금식...)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  
AD 30년에서 70년까지 또 한 번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가 주어짐.  
그들은 여전히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그 땅에서 쫓겨남.

### B. 마태복음 내용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사실을 잘 보여 주며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마23:37-39).

가장 중요한 단어: 왕과 왕국(단2:44)

마3:2; 4:17; 6:9-10, 13; 10:5-6; 11:3, 마13: 왕국의 비유

### 마태복음 특징

1. 교리적으로 볼 때 거의 유대인
2. 자신들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쓰임
3. 신약 시대가 열렸으나 내용 면에서 여전히 구약임  
침례자 요한의 사역 목적: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 요1:31  
예수님의 사역 목적: 롬15:8-9

## 마태복음 맥잡기 2

### C.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마태복음은 역사서, 시대적 상황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유대인 역사: 아브라함(BC 2000년), 이삭,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 출애굽, 땅 분배, 재판관들의 시대, 왕정 시대: 사울, 다윗(BC 1000년), 솔로몬,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BC 7210년 멸망), 남왕국 유다(BC 606-586 멸망, 536년 귀환)

예수님은 다윗의 계통을 따르는 메시아(삼하7): 그러므로 포로 귀환 이후 유다 왕국의 역사적 상황 이해 심히 중요함. 바빌론 포로 생활 때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 기간을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른다(눅21:24). BC 606년경부터 7년 환난기까지

#### 이방인들의 때: 느부갓네살의 환상

‘이방인들의 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꾸민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제2년에 한 꿈을 꾸었다(단2:31-45).

거대한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준다.

〈다섯 가지 세상 왕국〉 혹은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도표(한영/큰글자 25쪽, 스테디 77쪽)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빌론: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BC 606-536)

페르시아: BC 536-330, BC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명령(스룹바벨, 성전 재건)

BC 515 에스더, BC 457 에스라의 귀환, BC 446 느헤미야의 귀환(성벽 재건), BC 432 말라기  
그리스 제국: BC 330-63(시리아), 이집트(30-27), 한영/큰글자 13쪽, 스테디 37쪽

알렉산더 대왕은 단8:21-22에 숫염소로 표현됨, 그의 죽음(BC 323, 33세)으로 인해 그리스 왕국이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 네 개의 소왕국 곧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주전 323년에서 주전 30-27년경까지 지속되었다.

가장 강한 두 나라는 시리아와 이집트, 시리아는 셀레오쿠스 장군의 셀류시드 왕국,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의 프톨레미 왕국

### D. 헬레니즘 이교주의 영향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됨. 주인이 수시로 바뀔  
오랫동안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음

BC 17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BC 215-164)는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다. BC 170부터 BC 164까지 혼란의 소용돌이

그리스 문화(다신 문화)로 문화 통합하려함. 그리스주의자 아니면 야만인 취급

그리스 관습과 문화, 그리스 식 이름 등 미리암이 마리아로, 야곱이 제임스로...

그 결과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알렉산드리아의 이단들: 필로, 오리겐, 헤브라이즘+헬레니즘

성경의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해

### E. 제사장들의 부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절,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또 적극적으로 헬레니즘화를 장려할 유대인 지도자를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그는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리스 도시(폴리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야손은 체육관을 만들어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하였다.

3년 후, 메넬라오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쳐 대제사장직 차지, 대제사장 야손은 도망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성전 보고(寶庫)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야손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넬라오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다.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그런 반역을 했고 도 자신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메넬라오스 다시 임명

#### F.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마카비 반란(주전168년경): 셀류시드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주전 169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반란 진행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전 168년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원정에서 패한 뒤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함

주전 167년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1)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2) 돼지를 잡아 바침, (3) 구약 성경 말살, (4) 1,000명 이상의 하시딤들을 처형함

하시딤: 바빌론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 세계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가 가속화될 때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딤(Hasidi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말3:16-17).

이 하시딤 중에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하시딤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신비주의적,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옛세네 파라고 할 수 있다.

주전 167년 예루살렘 근교의 모딘 마을에 마타디아스라는 늙은 제사장, “안티오쿠스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 거부, “우리 조상들의 언약에 따르겠다.”

제우스에게 희생 제물 드린 배교자를 죽이고 파견된 관리를 죽이는 사건 발생

마카비 반란: 마타디아스 가문 주동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유다,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마카비: 영예의 호칭(마카베오, 정치 세력)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게릴라식으로 셀류시드 왕조를 괴롭힘. 셀류시드 왕조에 협조하는 마을을 불사름

BC 166년, 아버지가 죽자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싸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자 유다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킨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러졌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절(히브리어: 하누카,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0년경 전쟁에서 시리아의 니카노르 장군에게 패하고 전사한다.

마카비 형제 요나단에 의해 혁명은 계속된다.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주전 143년 시리아인의 음모로 요나단이 살해되고 시몬이 뒤를 잇는다.

시몬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인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켰다. 시몬은 주전 135년경에 암살되었다.

하스모니아(하스몬) 왕국 : 주전 140년-37년, 마카비들의 후예

유대인들은 주전 142년부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였다.

-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들(시몬, 힐카누스 1세, 아리스토틀루스 1세 등)

정치만 남고 신앙심은 사라지다 ★★★

#### G. 로마 시대

그리스의 뒤를 이어 로마 등장: 로마는 BC 8세기 무렵부터 로물루스와 쌍둥이 동생 레무스에 의한 전설적 왕정기(王政期) 시작

BC 510년부터 공화정기(共和政期)로 들어갔고 유명한 카이사르(시이저, 가이사) 사후(BC 44) 혼란을 겪음.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김. BC 27년 이후는 제정기(帝政期)로 들어갔다. 초대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눅2:1)

그러나 395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비잔틴 제국(동로마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다.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진다.

#### H.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주전 40년 로마가 헤롯 대왕 임명(에돔 족속)

주전 37년: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주전 20년: 성전 복원(46년)

주전 4년: 헤롯 사망

주전 4년: 침례자 요한과 그리스도 탄생

유대인들의 생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므로 메시아 출현을 눈 꼬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눅3:15; 갈4:4).

## 마태복음 맥잡기 3

마태복음은 역사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이해 중요, BC 606년부터 이방인들의 때 시작,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이교도들의 통치 기간 중 특히 그리스 시대에 헬레니즘 영향이 심함, BC 170년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혹독한 헬레니즘 강요, 마카비 반란, 이후 헤스모니안 왕국, 여전히 이방인 체제 속에 신음함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 장소는 성전, 또 이 당시에는 회당들이 확립됨 동시에 BC 200년부터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여러 분파가 생겨남.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I.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 드리는 건물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는 이교도들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삼상4:4).

#### 솔로몬의 성전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많은 물자를 예비하였다.

성전을 세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사를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다(창22:2, 14; 대하3:1).

성막(뜰, 성소, 지성소), 왕정이 시작되었기에 움직일 필요가 없다.

성전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며 외형만 커졌고 그 안의 기구들도 거의 비슷하다.

처음 성전을 짓는 데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대하5:1-14; 6:1-42; 7:1-22). 성전 자체는 주랑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변의 뜰과 방이 있는 지역이 넓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종종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구역을 의미한다.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 33년 동안만 아름다움을 유지하였고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곳을 약탈한 뒤부터(왕상14:25-26; 대하12:9) 하사엘, 디글랏빌레셀, 산헤립 등이 이곳을 더럽혔고(왕하12:1-21; 16:1-20; 18:1-37)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시켰다(BC586). 그래서 첫 성전은 약 424년 만에 땅에서 사라졌고 그 뒤 5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 스룹바벨 성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스1:1-4; 2:1; 3:8-10) 그 뒤 이방인들의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 21년이 지난 뒤 완공되었다(스6:15-18).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전 성전과 같았으나 겉모습은 이전 성전보다 떨어져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새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다(학2:3). 하지만 주님은 이 집의 영광이 처음 것보다 크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학2:9). 이 성전에는 언약궤, 금홍의 자리, 눈에 보이는 영광, 제단의 거룩한 불, 우림과 둠뭉, 대언의 영 등이 없었다.

#### 마카비 시대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제는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5년에 다시 경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였다.

####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은 자신의 통치 제1년인 주전 37년에 두 명만 빼고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70명)을 죽였으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뒤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46년에 걸쳐 다시 지었다(요2:20).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으므로 학2:9; 말3:1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헤롯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빼어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였다(막13:1; 눅21:5). 그러나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성전은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막13:2).

#### 천년 왕국의 에스겔 성전(겔40-48장)

한편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 J. 회당

이 말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회당: 단수 43회 + 복수 24회 총 67회, 시편 74:8의 '하나님의 모든 회당'은 신약시대의 회당과는 거리가 있음,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다.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으므로 회당이 마치 지역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이라 불렀고 동쪽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는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회당에는 열 명의 직무 수행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듯하다(계2:3).

사람들이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였다(마6:5; 막11:25; 눅18:11, 13). 유대인들의 회당은 경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이 나온다(마10:17; 막13:9; 행22:19; 26:11; 고후11:24).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요9:22; 12:42; 16:2).

AD 70년 디아스포라,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 주변에 모여 삶.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자동차 No, 불, 스토브 등 모두 No! 미국의 경우 좋은 학교들

#### K. 유대인들의 분파

바빌로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행과 의견 등으로 인해 다섯 부류의 분파가 있었다.

말3:16-17, 하시딤, 여러 분파로 나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원, 열심 당원 등.

● 바리새인: 마카비 전쟁 이후에 형성됨(BC 160년경).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다.

#### 회당 중심, 제사장과 성전 배경

그들은 구약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외적 의식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구전 전통과 규례를 첨가하였고(마6:5; 9:11; 23:5; 막7:4; 눅18:12) 그래서 미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형식의 틀에서 천주교와 비슷하다.

구전 율법 중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다(마 5:31, 43; 12:2; 19:3; 23:23).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들은 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을 믿었다(행23:8).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으며(마6:2, 5; 23:1-39; 눅 16:14; 18:9; 요7:48-49; 8:9.) 이로 인해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을 미워하고(마12:14)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했으며 그 결과 그분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돌아갔다. 한편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마27:57)과 니고데모(요3:1)와 시므온(눅2:25)처럼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다소의 사울 역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행26:5; 갈1:14).

● 사두개인: 마카비 반란 전인 주전 200년경에 형성됨. 제사장과 성전 중심

이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마16:1-12; 눅20:27). ‘사두개리’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구전 율법 배격).

그러면서도 그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마22:23).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유대 백성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행23:6-9)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의 편이었다(행4:1; 5:17).

● 에세네파: 마카비 전쟁 당시 형성됨.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 불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유대교의 한 조류이다.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금욕생활을 하던 정착지가 쿰란(Qumran) 동굴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건 생활 강조, 이들은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두 메시아(정치적, 종교적), 몸의 부활 부인, 결혼 금지

● 헤롯 당원: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의 추종 세력(마22:16; 막3:6).

헤롯은 로마 정권에 의존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인했다(마22:16). 헬레니즘

● 열심당(熱心黨): 젤롯당(Zealot당) 혹은 혁명당

로마제국의 식민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의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름부음 받은 유대인(메시아)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하였다. 그들은 66년에서 70년에 일어난 대대적 유대인 반란인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66년 예루살렘을 장악하여 4년간 버텼으나 70년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 시몬 셀롯(눅6:15), 바라바(막15:7)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갈4:4의 충만한 때)

1. 로마의 역할(정부): 팍스 로마나, 모든 곳에 화평이 있었다. 자유 무역, 자유 여행  
길(80,000 킬로미터의 큰 길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2. 그리스의 역할(문화): 언어, 코이네 그리스어
  3. 유대의 역할(유산): 산헤드린 공회, 회당, 종교 교육
-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 마태복음 맥잡기 4

###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역사서: 지난 3시간에 걸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봄

마태복음은 28장, 몇 시간에 걸쳐 맥을 잡으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강해

마태의 관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 가장 중요한 단어: 왕과 왕국(단2:44)

1-3장에는 왕의 출생과 침례자 요한의 사역

1절: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6개의 중요 단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세대, 책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son of David): 다윗 언약(삼하7장)

세대: generation(총 225회, 단수 107회, 복수 118회) 성경의 세대 개념, 어떤 존재에게서 나온 것, 그 당시 사람들

성경의 세대는 '한 세대는 약 30년이다'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에게는 한 세대밖에 없다.

창5:1, 아담의 세대들, 여러 세대, 특징 모두 죽는다(5:5, 8, 11, 14 등).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롬5:15-21, 고전15:45-47)

예수님의 한 세대는 예수님에게서 난 자들 또 그분의 형제들(히2:11-13)

이런 점에서 십자가 이후의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과 다르다.

기존 성경에는 책(book)이 빠져 있다. 책은 그리스어 비블로스로서 여기서 바이블이 나왔다.

현대 역본들은 창5:1에서도 책을 제거하였다. 구약성경에 단수 책(스트롱 번호 5612)은 146회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몸에 수태하여 낳은 것이 아니다. 이삭은 실제로 사라가 낳았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beget과 born을 구분하여 전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경우, 후자는 여자가 자녀를 낳은 경우에 사용한다.

beget(마1:2-15), born(마1:16)

beget은 'get'에서 나왔다. 특별 관계를 맺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그 둘이 아버지와 아들로 특별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번역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린다.

독생자(only begotten Son of God), begotten은 beget의 과거 완료 형

그러므로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 아기를 낳듯이 - 예수님을 낳았을까?

아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이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가 열두 지파 중에서 메시아를 내는 지파로 등장한다(창49:8-12).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다말(창38:6)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 셀라, 다말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가 나옴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창녀 라합(수2)의 아들이 보아스이다.

그래서 그는 장가를 못간 것으로 보인다(룻3:10).

라합(아모리 족속), 룻(모압 여인), 밧세바(헷 족속?), 르호보암의 어머니(암몬 여인)

6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다른 성경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로 되어 있다.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은 뒤에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불린다(삼하12:24).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 왕국의 분열,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따른다.

11절: 요시아(유다 왕국의 경건한 왕)는 여고니야(고니야)의 그의 형제들을...

12절: 여고니야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은 스투바벨을...스투바벨 시대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함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born: 여자가 낳는 것

마태복음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6,7절), 요셉의 계통

누가복음 3장 23-38: 아담부터 요셉까지: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31절), 마리아의 계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는 호칭을 나타낸다. 박근혜 대통령

● 그리스도(Christ,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말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 메시아(Messiah or Messias)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구출자를 높이며 사용한 말이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기름을 붓곤 하였으며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책을 위해 부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대개 메시아는 위에서 밝힌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들의 대언자들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구원자 즉 구출자를 뜻하는 호칭이다.

구약은 메시아 약속, 신약은 메시아 성취, 마21:1-17, 요1:45-46, 눅3:15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참 메시아요, 야곱의 실로요(창49:10), 율의 구속자요(욥19:25), 언약

의 사자(말3:1)이다.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한 줄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고난 받는 메시아로 묘사한다.

다른 줄기는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것으로 그분을 영광스러운 왕으로 묘사한다.

#### 18-25절: 예수님의 탄생 과정

18절: 정혼하였다. 함께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정혼, 신랑은 아버지 집, 약 1년 뒤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감, 정혼하면 곧바로

아내가 된다. 실제 육체적인 결합은 결혼식 후

마1:20, 네 아내 데려오는 것

마1:19, 그녀를 버리는 것(이것은 이혼이다, 마19:3)

요14:1-3,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고후11:2, 한 정결한 처녀로 정혼시켰다.

19절: 공개적인 본보기, 신22:23-24, 돌로 쳐서 죽인다.

20절: 주의 천사의 설명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수태된 아이이다.

21절: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1차적으로 유대인, 요1:12

23절: 임마누엘

사7:14, 렘31:22

임마누엘의 의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24절: 자기 아내를 데려옴

25절: 맏아들

가장 중요한 단어: '맏'(firstborn), 모든 현대 역본들은 '맏'을 제거함(마13:55-56)

카톨릭 교회의 동정녀 마리아, Virgin과 성경의 a virgin(마1:23) 차이

처녀 탄생의 핵심: 죄 없이 태어남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행20:28; 벧전1:18-19), 히2:14

처녀 탄생을 무너지면 기독교도 무너지는다.

## 마태복음 2장

### 1절: 헤롯 왕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 헤롯: 로마의 통치 밑에서 유대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통치자의 이름. 혈통: 에돔 사람 헤롯 대왕(마2:1-23; 눅1:5).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며 여러 도시를 짓고 확장했지만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를 열고자 했고 예루살렘에 극장과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았다. 헤롯은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또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충성된 신하들을 여리고의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고 헤롯은 그로부터 닷새 뒤에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 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경에 죽었다.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헤롯은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지역에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마2:1-23).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마2:22) 나머지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다른 두 아들 즉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코닛(드라코니티스)과 아우라니티스를 다스렸다.

- 베들레헴: 다윗과 그리스도가 출생한 도시. 이곳은 유다 지파의 도시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10킬로미터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역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고대 이름은 에브라타인데 이는 열매가 많음을 뜻했다(창48:7; 미5:2). 여기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다윗이 자기 양떼를 돌보던 곳
- 지혜자: 그리스말 마기(Magi), 마술사(Magician): 마술이나 점술, 천문학, 점성술 등에 능한 사람들을 가리킨다(창41:8; 출7:11; 예1:13; 단2:27; 5:15).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온 동방의 지혜자들은 조금 경우가 달랐다(마2:1-12).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너머로 끌려가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내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베들레헴에까지 왔다. 특히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었다.

### 2절: 유대인들의 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 4절: 헤롯이 물음

### 5-6절: 베들레헴 출생(미5:2), 계속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 11절: 선물(황금, 유향, 몰약)

황금: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다.

원래 금은 왕을 뜻한다(왕상10:18), 성막을 금으로 입혔다.

유향: 제사장 직분(출30:34-38), 향 제단

몰약: 죽은 몸에 넣는 재료(막16:1), 대언자(마21:11)는 죽는다(눅11:49-51).

### 13-15절: 이집트 피신

### 19-23절: 갈릴리의 나사렛 정착

이스라엘 땅, 원래는 북왕국,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킨다.

갈릴리 지방: 북쪽 지방,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마4:12-16, 갈릴리, 이방인들의 갈릴리,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사9:1)

누가복음 1장 31-33절: 메시아는 유다 통치

마태: 이방인들의 갈릴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도 하실 분임이 나타남(롬15:8-9)

그 위의 두로와 시돈, 갈릴리에서도 워낙 미미한 도시 나사렛(요1:45-46)

## 마태복음 3장

### 1절: 침례자 요한

-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사람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다(눅1:26).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사40:3; 마3:3; 말3:1; 4:5; 마11:14). 천사 가브리엘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동안 그의 출생과 이름과 직무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에 그리고 요한의 출생과 이름을 짓는 일에서 나타났다(눅1:1-80). 그는 초기에 동부 유대에서 지냈고 30세쯤에 주님의 대언자로 나타났다.
-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고 또 엄격하게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으므로 그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거의 비슷하였다. 많은 무리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침례를 기쁘게 받았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이때에 그는 이미 정해진 표적 즉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앉는 것을 보고 그분이 주님의 그리스도인 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선포하였다(요1:29; 갈3:24).
- 요한은 그 당시에 큰 명성이 있었으며(눅3:15) 산헤드린 공회는 그에게 물어 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요1:19-28) 헤롯 왕 역시 그에게 듣기를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요1:27; 3:30).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으며(마9:14; 눅5:33; 요4:1) 그의 영향력은 후에도 지속되었다(행18:25; 19:3).
- 그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였으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옥에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다(마11:3).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요한이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대언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던 그분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왕국의 확립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의 지상 사역은, 헤롯이 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 점점 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그녀의 딸 살로메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뒤 그의 목을 요구함으로써 요한은 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마14:3-12).
- 요한은 신약 시대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다(요3:29).
-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였다(요1:31).
-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로 신약 시대의 침례와 다르다(행19:1-7).

## 마태복음 맥잡기 5 마태복음 3장

### 1절: 침례자 요한

-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전령,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다(눅 1:26).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사40:3; 마3:3; 말3:1; 4:5; 마11:14).
- 그는 엄격하게 나사르 사람으로 살았으므로 그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거의 비슷하였다. 많은 무리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자기들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침례를 기쁘게 받았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도 그에게 나아와 침례를 받고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 요한은 그 당시에 큰 명성이 있었으며(눅3:15) 산헤드린 공회는 그에게 물어 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요1:19-28) 헤롯 왕 역시 그에게 듣기를 기뻐하였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으며(마 9:14; 눅5:33; 요4:1) 그의 영향력은 후에도 지속되었다(행18:25; 19:3).
- 그는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였으며 그 뒤에 이 일로 인하여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고 참쇠되어 순교하였다. 우리 주님은 요한이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대언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 모든 사람이 보기 원하던 그분의 일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왕국의 확립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요한은 신약 시대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John the Baptist
-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이다(요3:29).
-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였다(요1:31).
-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로 신약 시대의 침례와 다르다(행19:1-7).

### 2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일 시험 이후 주님의 말씀도 동일함(4:17)

우리 생각에는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왕국이 가까이 온다. 왕이 온다. 첫째 아담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왕국,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 연기됨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 하심, 초림도 재림도 마찬가지

#### 왕국과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

-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며(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막1:1, 14-15).

NIV 등 다른 성경은 막1:14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진실을 가린다.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기존 성경: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이런 구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다(마

4:17).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자들: 마10:5-6

수로보니게 여인: 마15:21-24,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 개들

-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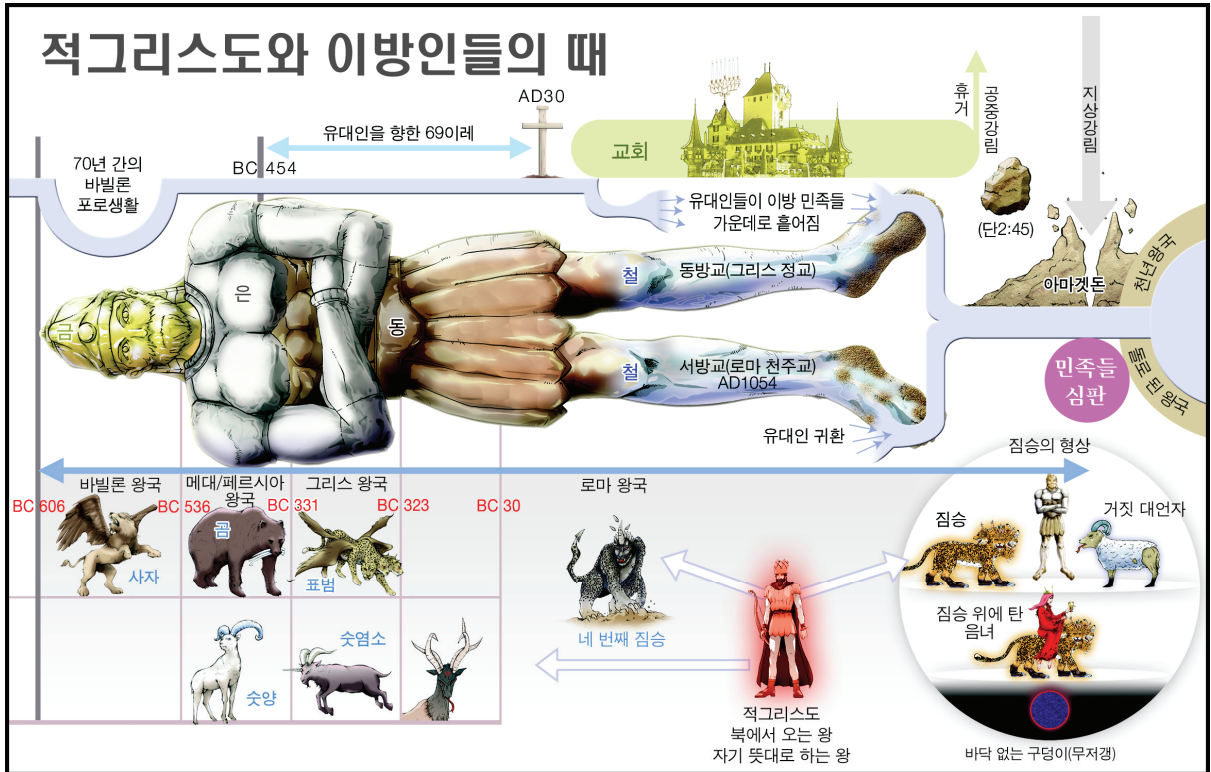


그림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한영 25, 스테디 77),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꿈 단2:31-45 설명, 돌 왕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단 2:44).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으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고(마23:37-39)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효가 전달되었다(롬11:30-31).

그 결과 교회 시대 도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교회 시대 이후, 휴거를 통해서

7년 환난기: 이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 영접, 또 다시 왕국의 복음

-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다(마24: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기존 성경: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롬11: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계시록 7장 4-8절의 144,000명

-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고(눅2:30-34; 38)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에 잠겼으나(눅24:21)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행1:6)  
기존 성경: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행1:6)

이때에 그분께서는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고(행1:7) 이에 그들은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권면했다(행3:19-26).

흠정역: 19 ¶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20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기존성경: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윤택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루어졌다. 스테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의 회개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 준 사건이며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파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왕국의 회복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림 때에 세우려 했던 하늘의 왕국은 그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위엄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은 성경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기존 성경 눅17:20). 문맥을 볼 때 “너희 안에 있다.”의 ‘너희’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이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그 결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좀 더 큰 개념이다. 마13장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비유, 사도행전 1장

## 마태복음 맥잡기 6

### 마태복음 3-4장

마태복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 회개(2절)

침례자 요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마3:2).

신약 성경의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 회개하라(4:17).

repent, 죄를 인식하고 내 뜻을 돌이켜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180도 정반대

나의 무능, 연약함, 취약함,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8). 눅3:10-14

회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없어도 회개할 수 있다, 후회라고 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다닌다(행20:21).

### 성령 침례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다(11-12절).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 침례(Baptism) 침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뱃티조’는 무언가에 푹 잠그는 것을 뜻한다.
-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한다. 마3:11-12를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다.
- 불 침례는 저주의 침례이다. 지옥 불의 저주, 불 호수의 저주
-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곁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몸이 물 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성령 침례: 성령님이 신자 속에 들어와 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성령 침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것,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주어진다(요7:39; 행1:5).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경도 성도들이 다 한 성령을 통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고전12:13).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추구하라는 명령이 없고 심지어 그 같은 것에 대한 암시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약: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공통 체험이다(고전12:12-13).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 성령 충만은 거듭 거듭 필요하고 거듭 거듭 받는다(엡5:18).

### 삼위일체

16, 17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성경에서 처음으로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묘사됨

- 삼위일체(Trinity)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흠정역: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2:5).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흠정역: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약2:19).

개역: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 5:7).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양태론이란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는 주장이다. 또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이단 교리라고 한다.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에 근접한 예로 시간을 들 수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 예수님의 시험(4:1-11)

1-11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눅4:1-13)

초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 첫 아담의 실패, 마지막 아담의 승리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이브의 선악과 시험(창3:6):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도 요한(요일2:15-17):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빵: 육신의 정욕,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 줌: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 인생의 자랑  
마귀가 하는 일: 성경을 의심하게 한다(창3:1). “그래 사실이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기록된바(It is written: 옛날에 기록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예수님의 ‘It is written’ 언급은 적어도 18번(마4장, 마21:13; 26:31 등)

성경 보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대로 보존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것이 지금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 왕의 갈릴리 사역(4:12-17)

가버나움(13): 예수님의 도시(마9:1; 11:23), 나사렛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사9:1-7에는 메시아의 갈릴리 사역, 큰 빛(요1:4-9), 민24:15-17

17절: 하늘의 왕국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18-22절: 왕이 네 어부를 부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필요하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 왕국의 표적(4:23-25)

왕국의 복음에는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들어 있다(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의 시작부터 표적을 요구한다.

모세의 이집트 복귀: 출3:11부터, 하나님의 이름, 이적과 표적, 아론을 만남(출4:27-31).

고전1:22,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마11:5).

유대인들은 민족 국가로 시작하면서부터 표적을 구하고(출4:30) 표적과 함께 끝난다(막16:17).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표적과 이적은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존재한 때까지 즉 AD 70년 정도까지만 존재하였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율2, 행2의 표적과 이적이 재현될 것이다.

사도행전 초기에는 표적이 있었으나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고후12:12).

요나의 표적(마12:38-42)만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요나의 이방인 전도

24-25: 시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등

이 당시의 시리아는 갈릴리의 북쪽, 페니키아의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데가볼리(데카폴리스): 주로 그리스 말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았다. 거라사 지방

갈릴리 호수 온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

## 마태복음 맥잡기 7

### 마태복음 5장

이 땅에 왕국을 주러오셨다. 왕국 백성 특히 유대인 백성에 왕국의 규범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 탈출 이후 새 시대가 열리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비슷함

1-12절: 산상수훈, 가버나움 근처의 산, 지금은 팔복 산이라고 함

여기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9-20절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과 대비가 된다. 어느 것을 따를까? 갈2:16, 갈1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는 헌장이다(천년왕국의 헌장). 여기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금해야 하는 유대인이다.

산상수훈의 교훈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교훈으로 지킬 내용이다(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곁에 앉아서 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이라도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왕국의 연기(마23) 이후에 우리는 영적 적용을 위해 왕국, 재림의 문맥에서 뜻을 알아야 한다.

8복: 3-10절, 3-9절은 성품, 10절은 그런 성품 소유자가 당하는 고통

5절: 땅을 상속받는다. 땅은 land가 아니라 earth이다. 창15:18-21

재림의 문맥, 무엇을 하면, 어떤 성품을 가지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모두 행위와 상관이 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12절에는 대언자가 나온다,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이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OED

대언과 대언자(prophecy, prophet) 성경에 668회

현대영어사전: '예언하다', 예언자, 예언, 선지자, 그러나 OED는 대언, 대언자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 출7:1; 겔37:4; 계19:10.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눅11:50-51)

아브라함도 대언자로 불린다(창20:7).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주(LORD)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선언함(신18:22).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패망은 거짓 대언자들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비슷함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벧후1:20-21).

기존의 성경, 고린도전서 12-14장 등에서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

심각한 영적 선물(은사) 문제가 일어나고 기복신앙이 널리 퍼졌다. 예언 기도, 예언 권사 등

강조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8복에 나오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즉 영적인 적용 받드시,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은 천년왕국에만 해당된다고 하면 난센스, 극단적 해석을 피해야 한다.

13-16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말씀

13절: 땅의 소금

소금이 맛을 잃는다: 산에서 나는 소금, 흠과 같이 있다. 맛을 잃으면 흠은 아무 쓸 데 없다.

14절: 세상의 빛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고(요9:5)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도구로서의 빛

15,16절: 세상의 빛: 우리가 증언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의 구원 목적: 엠2:8-9, 빌2:12-13, 구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신약에서 처음 나옴), 모세 5경의 사상(출4:22-23, 신32:6, 18-19; 사46:3)

대문자 Father : 신약에서만 260번. 구약에 1번. 완전히 새로운 계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다(요1:18; 14:6; 마6: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요일3:23).

기도의 대상(갈4:6; 막14:36)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눅16:24). 예수님의 '내 아버지'(요5:17-18) 발언에 그분을 죽이려 함.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요19:7) 우리는 아버지께 경배한다(요4:23).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롬8:14-15).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요8:44).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17:3).

#### 17,18절: 율법과 대언자를 인정하심

1. 21-33절은 실제로 율법을 넘어서는 가르침이다.

2.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롬10:1-4).

17절, 율법(Law): 원래 이 말은 법을 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시19:7-11; 119:1-176; 사8:20), 구약성경(요10:34; 15:25), 히브리 성경의 세 부분 중 하나인 모세오경을 가리킨다(눅 24:44; 행13:15).

모세오경은 율법이었다: 의식 법규, 사회 법규, 도덕 법규

의식 법규: 경배의 양식, 희생 예물, 제사장, 정결례 등을 규정하는 법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의 잣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신약시대에는 폐지됨(갈3:24; 엡2:15; 히9:1-28; 10:1-22).

사회 법규: 유대인들의 정부 체제를 위한 법규(행23:3; 24:6).

도덕 법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특히 사람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신5:22).

이것은 창조주께서 사람의 양심에 기록하신 것이며 죄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롬1:19; 2:12-15). 이것은 시내 산에서 십계명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졌으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요약하여 주셨다(마22:37-40).

이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며(롬7:10, 12)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갈3:10; 약2:10)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강화시키셨으며(마5:17-20).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훈육 선생이다(갈3:24).

율법 폐기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롬6:14-15; 7:4, 6; 갈3:13, 25; 5:18)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시119:97; 마5:48; 11:30).

18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21:1, 성경의 말씀들이 최소한 그때까지 보존된다.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 성경의 보존

#### 20절: 너희 의

유대인들의 의에 대해 말한다(마3:15).

바리새인들의 의(눅18:9-14), 사도 바울(빌3:6), 율법의 의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하면 똥과 같다(빌3:8).

구약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29-30절: 지옥,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이다.

● 지옥(Hell): 지옥은 '스올'이라는 히브리말과 '하데스'라는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16:10; 사14:9; 겔31:16; 눅16:23). 이 경우는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을 뜻한다.

● 성경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말한다(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가셨고(행2:31)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다(엡 4:9-10).

## 마태복음 맥잡기 6

###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왕국의 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왕국 백성의 현장,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백성의 의식 변화, 생활양식 변화

#### 간음과 이혼, 헛된 맹세 문제

왕국 백성이 해결해야 할 관습의 문제: 간음과 이혼, 헛된 맹세

1. 간음하지 말라(27; 출20:14),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결혼(정혼) 상대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음행(fornication)보다 더 심각한 죄였다. 이것은 중대한 죄로서 십계명의 일곱째 명령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음행은 당사자들의 추후 결혼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간음은 그렇게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질투하는 남편으로 비교하셨으며(렘31:32)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극도의 간음과 음행으로 비교되곤 했다(렘3:9; 겔23:36-49).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간음의 당사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레 20:10; 21:9; 요8:5)

간음 죄 강화: 예수님은 심지어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28). 왕국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다.

2. 이혼 문제(31),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만한 문제, 눅16:14-18,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14), 이들은 간음하는 자들(18)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이혼 문제가 사회 문제, 말2:10-16

이혼 증서만 쓰면 된다(31), 모세의 율법은 여러 이유로 이혼을 허락했으나(신24:1-4) 우리 주님은 오직 음행의 이유 외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마5:31-32; 19:9).

3. 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창조, 하나님의 계획, 한 남자와 한 여자, 경건한 씨를 내야 한다. 경건한 가정, 국가 구약 시대에 이것을 지키지 않음, 심지어 다윗도 일부다처, 사악한 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예수님의 설명, 마19:3-10, 특히 10절 강조

즉 건전한 결혼, 건강한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에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33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한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순종

마지막 시대에는 동성애와 극도의 페미니즘에 의해서 결혼과 가정이 깨어진다.

미국도 동성 결혼 인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혐오금지법, 3000만원 이하 벌금

뉴질랜드 세계 최고의 페미니즘 국가, 정부의 고위직은 거의 다 여자가 차지함

여성에게만 유리한 이혼 제도(아내들의 갑질 증가, 아내 요구로 인한 이혼 증가 -> 남성들 결혼 거부 -> 동거만 증가 -> 여성들 궁핍 -> 복지 시스템에 연명

뉴질랜드는 남성들의 15퍼센트 이상이 외국으로 탈출, 여자들만 남음, 결혼이 어려움

이것은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님. 대다수 서구 국가의 문제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 그러나 가정에서는 직무 상 동등하지 않다.

모든 일에 평등을 주장하면 가정이 깨어진다. 이혼이 된다.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람의 의무

4. 헛된 맹세(33-37), 맹세: 지존자를 두고 약속하는 것. 하나님은 거짓 맹세와 보통 대화에서 쓸데없이 맹세하는 것을 다 금하셨지만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셨다(출 22:11; 레5:1). 그래서 다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렘5:7; 12:16).

맹세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임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말이 거짓이면 그분께서 복수하실 것이다(히6:16).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그분께서 무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신10:20) 따라서 그 방법과 맹세한 사람의 의무 등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출22:11; 신6:18; 시15:4; 24:4). 그러므로 하나님

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이후에 보상과 형벌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맹세할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맹세의 취지가 바뀌기 시작함: 마23:16-22

원인은 종교인들

주님의 권고(약5:11): 구약 시대의 규정 강화

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38), 출21:24 등, 그때에는 이것만도 긍휼

그러나 이제 왕국 시대에는 강화한다: 39-42

2. 원수를 사랑하라(43-44)

원수를 미워하라(43): 구약의 랍비들이 더한 것(시139:21, 잠25:21-22), 구약적인 개념

원수를 사랑하라: 새로운 가르침

이런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 감당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싸워야 한다.

여기의 원수는 개인적인 문제로 적이 된 사람을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45절): 구원의 방도가 아니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비교: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롬4:11-16)

해도 주고 비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롬2:4-6).

### 마태복음 6장

1-4절: 구제

구제물(alms):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기 위한 돈 혹은 물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열어 관대히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받았다(신15:11). 그래서 포도원, 과수원, 밭에서 수확한 후에 남은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으며(레19:9-10; 룻2:2-8)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잠14:21; 19:17).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구제물을 주면 죄가 용서된다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다. 예수님 때에는 의(義)라는 말이 구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물을 주는 것(마6:2-4), 기도(마6:5-15), 금식(마6:16-18) 등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마 6:1)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주님은 구제물을 주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적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비다(행9:36)와 고넬료(행10:2) 같은 성도들이 구제물을 준 것들을 잘 보여 준다. 크리스천 교회는 반드시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하나님은 이런 자선 행위를 기뻐하신다(사58:6-8; 요일3:17).

신15의 면제년, 7-11 설명

## 마태복음 맥잡기 4

### 마태복음 6장

왕국 백성은 의식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종교와 종교인들 지적, 저주, 위선자라고 함, 종교 타파  
위선자들이 하는 일: 자기의 선행을 알리려고 나팔을 불고 다닌다. 자기를 드러낸다.

위선자: 그 당시의 극장들, 극장의 배우,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개역 성경의 외식하는 자  
복음서 단수 3: 복수 17번, 총 20번

#### 5-6절: 기도의 원리: 골방 기도

유대인들의 공중 기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세 번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아무 때에,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골방: 안에 있는 은밀한 곳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 7-8절: 기도의 원리: 헛된 반복 금지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다.

헛된 반복: 마리아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주, 만트라, 방언, 록 음악

이교도들: 말의 양에 달려 있다고 믿음.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다.

의미를 모르고 헛되이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교도들의 행위와 같다.

#### 9-10절: 주기도문, 하늘의 왕국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기도이다. 진짜 주기도문은 요17장이다.

우리 아버지여,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거룩함이 망각되는 시대이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 거룩함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임하옵소서.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왕국(단2),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가져오는 왕국이 아니다.

마태복음을 이 왕국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 11-13절: 주기도문,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1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해야 하는 기도이다.

12절이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 13절에 원래는 for가 있다.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이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대상29:11).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 나는 기도가 약한 사람

유튜브: '주기도문 왜 안 하는가?' '새벽기도 통성기도 왜 안하는가?' '사도신경 왜 안하는가?' '개인 기도  
공중 기도 바로 하기', '그리스도인의 기도'

#### 14-15절: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하다(12).

용서하는 정신은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죄 용서 방법이 아니다.

#### 16-18절: 금식, 위선을 부리면 안 된다.

● 금식(Fasting)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금식했으며  
이것은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

으로 인한 식욕을 유보시킨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 예가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신9:9; 왕상19:8; 마4:2).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다(삿20:26; 삼상7:6; 삼하12:16; 왕상19:8; 느9:1; 렘36:9). 또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 그들은 특별 금식을 정하고 젓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했다(을2:16; 단10:2-3). 그들은 해가 질 때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금식했으며 또 매년 속죄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모두 금식했다.

-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금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암시한 적이 있다(눅5:34-35). 실로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하는 삶이었다(고후6:5; 11:27). 우리 주님은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셨고 사도들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실천했다(마6:16-18; 행13:3; 고전7:5).

영국 덩케르크 금식

금식은 필요하지만 위선으로 하면 안 된다.

### 19-21절: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는 땅의 보화를 버릴 때 쌓인다.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더해진다.

진정한 헌금의 원리: 목사는 가르쳐야 한다. 헌금은 예배 행위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히11).

### 25-26절: 의식주 문제

탐욕과 염려의 문제

1.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다(25).

누가복음 12:13-21, 어리석은 부자

2. 사람이 공중의 새보다 소중하다.

3. 인간의 미약함(27)

28-30절: 백합을 보라

4. 들의 꽃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

### 31-32절: 아버지가 아신다

대개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 이교도 종교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히11:30-38

### 33-34절: 하나님의 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통치)이 나온다. 그분의 의(righteousness)와 상관이 있다.

의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Right,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이다(롬14:17). 의와 화평과 기쁨

하나님의 왕국(69회, 마태복음 5회)과 하늘의 왕국(마태복음 32회)은 거의 같다. 마13장에서 설명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설명한 곳 로마서

롬1:16-17, 3:20-24, 4:1-5(창15:6),

잘못된 의(롬10:1-4)

하나님의 방법(고후5:21)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다. 빌3:1-9

이것은 절대로 종교가 주지 못한다. 의(義)

## 마태복음 맥잡기 10

산상수훈: 5장 왕국의 현장, 6장 왕국 백성은 의식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간음 no! 신성한 결혼, 헛된 맹세 no!, 원수도 사랑하라!

구제, 금식, 기도 등 위선의 문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롬2:28-29

### 마태복음 7장(산상수훈 종결)

#### 1-2절: 판단하지 말라

대부분의 위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은사주의자들, 틀린 것 지적하면

비교: 고전2:15, 고전5:3, 고전6:1-5, 눅12:57(예수님의 말씀)

판단하고 구분하는 일이 안 되면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본적 진리는 항상 판단하고 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킨다(눅18:9-14).

그리스도인의 판단 대상

1. 자기 자신(고전5:3; 6:2,4; 11:13, 31), 2. 교리
3. 소소한 교리적 차이가 있는 형제를 불신자처럼 여기고 판단하지 않는다(롬14:1-10, 13).
4. 급히 판단하면 안 된다.
5. 판단해서 지목하고 피해야 한다(롬16:17-18; 엡5:1-14).
6. 판단의 기준: 나무의 열매(마7:15-20).

#### 3-5절: 티와 들보, 위선자들의 특징

롬2:17-24, 갈6:1-4

#### 6절: 개와 돼지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벤허2장의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 특히 벤허2장 22절: 개와 돼지

어떤 때는 성경의 진리를 돼지처럼 짓밟는 자들을 본다.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조심해서 해야 한다.

거룩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거짓 대언자들에게 넘겨주지 말라.

이들은 진리를 짓밟고 오히려 진리를 알려준 자들을 찢는다.

구원 전도할 때: 무리하게 푸쉬하지 말라

#### 7-8절: 구하라, 기도의 정석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14:13-14; 15:16; 16:23-24; 골3:17).

#### 9-11절: 아버지가 하시는 일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비교, 좋은 것: 빵과 돌, 나쁜 것: 생선과 뱀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가? 마6:31-33, 의식주 문제 구하지 말라. 이것과 배치됨

눅11:9-13, 성령님, 그러므로 문맥상 판단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약1:5; 3:17)

#### 12절: 인생의 태도,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게 지내라(롬12:17-18).

#### 13-14절: 좁은 길과 문

잠14:12, 16:25

다수는 대개 옳지 않다.

요14:6

#### 15절: 거짓 대언자

유다 패망의 원인(사56:9-12; 렘5:30-31; 겔22:25; 겔44:23), 거짓 대언자는 죽여야 한다(신 18:20-22)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의 경고(벧후2:1-3; 딤후4:1-5; 유4-18 등)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계2:6):

긴 옷을 입는다(서기관, 막12:38), 아버지 호칭을 받는다(지도자, 마23:9)

정죄 받을 이단 교리: 피의 속죄를 부인한다(벧후2:1-2).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신천지, 안상홍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길을 따른다(큰길).

대개 개로 표현된다(벧후2:22, 빌3:2; 계22:15).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다.

진리(Truth)와 듣기 좋은 이야기(Good talk)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 패망의 원인: 목사와 그리스도인

16-20절: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모르거든 나무를 흔들라.”(루터)

1. 죄를 가볍게 여긴다.
2.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3. 사람을 신격화한다.
4. 스스로의 속죄를 주장한다(행위 구원)
5. 회개를 무시한다.
6. 지옥 선포를 주저한다.

21-23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짓 대언자들 요약문

진짜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대다수가 속아 넘어간다(고후11:13-15; 벧후2:2).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요6:39-40).

그 날(that day)이 있다: 재림의 심판의 날(사2:11, 17; 3:7; 18; 4:1,2; 5:30 등)

이들은 하늘의 왕국(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다(행19:13-15).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안 적이 없다.

이 구절을 오용하여 ‘구원을 받았다가 잃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never에 주의해야 한다.

24-27절: 두 종류의 사람

야고보서는 산상수훈의 주석, 행하는 자와 듣는 자(약1:22)

여기서도 예수님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청중은 이스라엘이다. 믿음의 행위

집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아야 한다(마12:43-47; 23:38).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롬11:25-26)

구원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대개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 이스라엘과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

영적인 적용: 두 무리

듣는다. 필요를 느낀다. 행한다. 시험을 견딜 줄로 확신한다. 시험을 받는다.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한다. 기초가 다르다. 시험의 결과가 다르다.

28-29절: 확신 있게 말한다.

서기관들: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신 있게 말씀하신다(요7:46; 고후3:12).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사람, 죄, 마귀, 백합, 까마귀, 지옥..., 산상수훈 종결

## 마태복음 맥잡기 11

산상수훈: 5-7장, 메시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의 현장

### 마태복음 8장

1절: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심(마5:1). 이제부터 백성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2-4절: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께 경배하였다(worship). 절하였다(bowed down). No!

이제부터 병 고치는 일이 자주 나온다. 메시아 표적(사35장 1-2, 5-6절 참조) 필요

나병: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병, 피부병, 지금의 나병과는 조금 다르다.

그 당시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다(미리암 사건, 민12:12). 하나님만 고친다.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렵없는 말이다(3).

제사장도 관찰만 했다. 정결하게 된 뒤에도 피를 통해서만 만질 수 있었다(레14:14).

2절의 주여(Lord), 십자가의 강도, 주여(눅23:42), 현대역본들은 '예수여'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4).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도(마16:20), 때가 되지 않았다.

5-8절: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은 예수님 자신의 도시이다(마9:1).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나온다. 마27:54, 행10장의 고넬료(1절), 행22:26, 행27:1의 율리오

마비병은 꼭 중풍이 아니다. 또한 병은 반드시 부정한 영과 상관이 있지 않다.

9-13절: 권위 아래 있다. 주님이 누구신지 파악하였다.

군대의 질서를 언급하며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함(9)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신다(10). 유대인들의 불신과 대조를 이룸.

'이스라엘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영적 이스라엘 아님

이스라엘(창32:28-29), 야곱의 다른 이름, 통치자,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많은 이방인들(11): 천년왕국(하늘의 왕국)에 참여할 자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 왕국의 자손들이 있다(12).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한다(11절, 단12; 눅20:27-38).

왕국의 자손들이 쫓겨난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마13:11)

14-15절: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는 결혼하였다.

베드로는 제1대 교황으로 독신으로 살지 않았다(고전9:5). 모든 병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 아님 No!

16-17절: 마귀 들린 자들(28-34에서 설명)

16절 병든 모든 자를 고쳤다(healed all that was sick). '믿음 있는 자만 고치지 않았다.'(행5:16)

17절은 사53:4 인용,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도다.'

질문: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는 병 고침이 들어 있는가? 그렇다. ★★★

은사주의자들의 딜레마: 1. 속죄 사역에는 구원이 들어 있다. 병 고침이 들어 있다. 2.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3.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실수하게 된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는 자연계의 저주(롬8:19), 짐승 세계의 저주(사11:7), 세상 자체의 저주,

병, 가난, 잔인함, 전쟁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 다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시대에 모두 요구하면 안 된다.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는 것(사65:25), 해치는 일과 상하는 일이 없는 것(사11장) 등은 모두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요일5:14): 약을 쓰든지 안 쓰든지(행3:7)

혹은 그대로 아프게 두기도 하신다(딤후5:23; 딤후4:20; 고후12:5-8).

18-22절: 나를 따르라, 서기관, 성실한 사람, 대가를 따지지 않고 덤벼 들.

그 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심지어 밖에서 잠자는 것을 요구함(요6:66-68)

여유, 새: 성경에서 마귀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부족한 게 없다.  
사역자가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된다. 바울의 자세: 고후6:3-10  
죽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소서(21). 예수님 당시 그분에게는 복음 선포가 더 중요하였다(22).  
죽은 자들: 살아 있으나 죽어 있다(엡2:1). 다시 태어나야 한다(엡5:14).

### 23-27절: 풍랑을 멈춤, 자연계의 기적

어떤 분이냐? 풍랑도 멈춘다. 메시아 표적

### 28-31절: 게르게스 지방의 마귀 들린 자들, 마귀와 마귀들

#### 마귀들의 특징:

1.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다(29): 하나님의 아들, 영적 존재이므로, 이들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때가 온다(예수님의 재림 이후, 특히 1000년 왕국 이후 영원히 불 호수에서, 마25:41).
2. 종종 바르게 말한다(행16:17), 그래서 요일4:1에 있듯이 영을 분별해야 한다.

### 32-34절: 마귀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결국 돼지들을 모두 죽인다.

마귀의 일에는 혼란과 혼돈이 있다(고전14:33; 40).

명상, 만트라, 입신 등을 통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

빈야드 등의 성령 체험으로 내모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단정하게 옷 입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

### 8장: 메시아 표적, 나병, 마비병, 열병, 각종 병, 풍랑, 마귀 들린 자...

#### 마태복음 9장

### 1-2절: 마비 병 환자(마2:1-12), 그분 자신의 도시: 가버나움

여기서는 마비 병이 죄와 상관이다(2절). 다 그런 것은 아니다(요9:2-3).

십자가 사건 전에도 병 고침 전에는 대개 죄들의 용서가 있었다.

죄들의 용서는 말씀 선포와 상관이다(마10:7-8; 눅9:6).

### 3절: 신성모독 비방, 신성모독: 그분의 십자가 처형 죄목(마26:65; 요19:7).

### 5절: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병(하나님의 권능), 죄(하나님의 권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둘 다 쉽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 주신다. 즉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하신다.

유대인들의 생각: 하나님만 이런 병을 고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한다. 사람은 둘 다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할까? ★★★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죽이고 만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 9절: 마태를 부름,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막2:14), 세리(눅9:11)

마태를 부르는 것: 은혜, 왕의 부르심, 개인적인 부르심,

마태의 반응: 믿음, 희생, 즉각적인 반응

### 10-13절: 공흠을 원한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생각: 가난한 자, 하류층, 병자는 죄인이다(요9:31-34)

야고보서의 설명(약2:1-9)

일반적인 죄인: 음행을 일삼는 자, 주정뱅이, 간음하는 자, 마약하는 자, 도둑, 유괴범, 아내를 때리는

성경의 죄인: 시기, 질투, 자기 의, 교만, 속임수, 완고함 등

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병든 자들에게 필요하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골4:14), 의사에 대해 좋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의사이시다(눅4:23).

공흠을 원한다(호6:6):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 책망, 고멜까지도 사랑하신다.

마12:7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희생물이 아니라 공흠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롬11:32).

마21:31-32,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13).

### 14-15절: 금식,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된다. 종교인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공격

금식: 금식 자체는 명백한 명령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사58:3-7; 스7:5-6, 잘못된 금식 관행에 대한 책망

성경의 여러 사람이 금식을 했다(다윗, 다니엘, 아합, 모세, 엘리야, 에스라 등등).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눅18:12), 주님의 제자들은 안 함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음.

혼인 방 아이들: 신랑(신부)의 친구들, 여기서는 자기 제자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킴

16-17절: 새 옷감 조각, 새 포도즙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체(낡은 옷, 낡은 부대)는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신약 시대, 성령님의 내주 시대, 교회 시대

구약 시대와 다른 시대

새 부대가 있어야 새 포도즙(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부대: 가죽 부대, 포도즙이 발효하여 팽창하면 터진다.

18-26절: 회당 치리자의 딸, 혈루증 여인

27-33절: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 줌

32-35절: 말 못하는 자를 고침, 바리새인들의 저항(34), 왕국의 복음 선포(35), 질병, 질환

36-38절: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하라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양과 목자: 겔34(34:1-5, 23)

추수가 아니라 수확이다. 이스라엘의 수확은 봄에 이루어진다.

수확은 영적인 수확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상 끝을 뜻한다(마13:30; 계14:15).

요4:35-38: 영혼 구원의 수확

## 마태복음 맥잡기 12

산상수훈: 5-7장, 메시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의 현장  
8장부터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메시아 표적: 병 고침, 마귀를 내쫓음, 자연계(바람과 파도)를 치리하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공회를 베풀기 위해, 회개하도록(9:12-13)

## 마태복음 10장

1-4절: 열두 제자, 능력 부여

12제자, 12이라는 숫자, 12지파, 유대인 사역(히2:3-4),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1, 고전 1:22).

열두 제자 이름(막3:16-19; 눅6:14-16),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순(2)

사도(2): '파송된 자', 지금 더는 존재하지 않음

제자: 선생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유효

5-7절: 하늘의 왕국 복음

이방인들 제외(비교 롬10:9-16), 마28:19, 막16:15 온 세상, 모든 창조물

이스라엘의 집과 상관(비교 행2:36-38), 행1:8과 비교

왕국의 복음의 내용(7)은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고전15:1-6)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다.

왕국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갈1:6-12)과 다르다.

기존에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오해해서 가르친다. 여기에는 아직 교회가 없다.

8-10절: 병자들을 고침

병든 자, 나병 환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마귀들을 내쫓는다 등 역시 메시아 표적 성경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역시 메시아 사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11-15절: 화평의 사역(13)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화평의 사역자, 복음의 핵심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14-15),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더 견디기 쉽다. 지옥의 등급(마23:14; 계20:13-15 등)

16-17절: 조심하라

양, 이리, 뱀,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무해한 자가 되라(빌2:15).

18-20절: 증언한다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이다. 이것은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왕들과 총독들에게 증언할 것이다(10장 23절 참조).

너희 아버지의 영, 성령님(20)께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

21-23절: 조심하라

이것 역시 특별히 재림 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의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이다(마24:13-14).

여기의 끝은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다.

23절 끝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가 있다'. 이때가 끝이다.

24-25절: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왕하1:1-2), 바알세불: 마귀들의 통치자(마12:24), 사탄

26-2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의 두려움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

두려움(Fear): 420회 이상, The fear of the Lord: 30회, 이 중 14회가 잠언에 나옴

어둠 속에서 말한 신비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27). 무엇을, 지옥의 현실을

지옥의 두려움(28절)

‘지옥에서 혼과 몸을 멸한다’: 혼과 몸은 다르다. 성경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영혼육으로 본다(창2:7). 멸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반론: 부자와 나사로 실화 눅16:22-32

마10:28(destroy), 요3:16(perish): 살후1:9와 함께 생각해야 함. (6-9절 참조)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떠나 생명이 제 구실을 못해 폐허 상태가 되는 것

#### 29-33절: 참새

참새가 떨어지고 머리털이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All seeing God)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28과 31절 아이러니(출20:20).

#### 34-39절: 짐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다(눅2:14).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분열이 생긴다. 반드시 진리와 오류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한 싸움이 일어난다.

38절: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 40-42절: 보상

문맥은 11장 1절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과 상관이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계22:12).

### 마태복음 11장

#### 2-3절: 침례자 요한의 의심(눅7:19-23)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리고 자기가 그의 전령이라면 도대체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는 무엇인가?

침례자 요한은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도행전 2-7장의 유대인 제자들처럼

#### 4-6절: 메시아의 일

메시아는 누구인가? 반드시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한다(신18:18).

#### 7-9절: 침례자 요한의 정체

흔들리는 갈대(No),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No), 그는 대언자이다(선지자가 아니다).

#### 10-13절: 사자

막1:2, 사40:3, 말3:1, 주님 앞에 가는 전령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말3:1).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할 것이요(마11:10)

#### 11절: 여자가 낳은 사람들(구약 시대 사람들)

왕국 시대 혹은 교회 시대의 가장 작은 자도 그들보다 크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은 계시, 완전한 계시, 교회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알고 있다(요1:16-17, 히브리서의 더 나은, 7:19; 22; 8:6; 9:23 등).

#### 12절: 기존 교회에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들 중 하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개역) 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침노하다: <1.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다.> 천국을 불법으로 쳐들어가는가?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을 오해해서 이런 해석이 생긴다.

침례자 요한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였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시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2-13 참조).

1.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 시대(요한에서 끝이 남)
2. 요한부터 십자가(변천기)
3. 미래(마8:11)

14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폭력배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박사 등(마11:18-19; 23:13)

침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신약 교회의 인물이 아니다. 침례교회의 창시자가 아니다.

**14-15절: 엘리야**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자들: 모세와 엘리야(말4:1-5), 계11:3의 두 증인

요한은 엘리야의 표상(눅1:15-17)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을(it) 받아들이면, 그것은 왕국이다.

**16-19절: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비교

요한: 금욕적인 모습, 예수님: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요점: 이렇든 저렇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함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justify

그의 열매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20-22절: 도시들을 꾸짖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고라신, 벳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도시들

두로와 시돈: 바알 숭배, 이세벨(시돈 왕 옛바알의 딸)

요나의 선포(욘3-4), 굶은 베와 재

심판의 때(계20:13-15), 행17:30-31

**25-27절: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

지옥의 언급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눅10:21, 그분께서 기뻐하셨다. 복음서에서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여기가 유일하다.

기쁨의 이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는다(고전1).

**28-30절: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수고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안식을 주리라(혼의 안식, 29)

모든 사람이 죄 짐을 지고 있다.

예수님의 명에(십자가와 비슷하다). 무질서가 아니다.

내 짐은 가볍다(요일5:3): 교회에만 오면 짐이 무거워진다. 문제가 아닌가?

## 마태복음 맥잡기 13

산상수훈: 5-7장, 메시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의 현장  
8장부터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메시아 표적: 병 고침, 마귀를 내쫓음

10장 열두 제자에게도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10:28).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11:25ff).

### 11장 28-30절: 내게로 오라

수고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안식을 주리라(혼의 안식, 29)

모든 사람이 죄 짐을 지고 있다. 예수님의 멍에(십자가와 비슷하다). 무질서가 아니다.

내 짐은 가볍다(요일5:3): 교회에만 오면 짐이 무거워진다. 문제가 아닌가?

신약 교회의 특징: 조직을 작게 해야 한다. 개인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 마태복음 12장

### 1-4절: 안식일 문제, 안식일 준수

a.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출20; 31:12-17; 느9:14; 겔20:12, 20), 주전 1500년경  
에 안식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짐, 아무도 그것을 명령으로 지키지 않음.

b.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창세기 인물 중 아무도 지키지 않음.

c.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창1:15-17)은 안식일을 포함하지 않음

d.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e.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행한 일(삼상21:1-6), 사울에게서 도망가다가 눕에 있는 성막으로 감

1. 다윗이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 보여 주는 빵, 매 안식일에 12개 전시, 치운 빵은 제사장들  
만 먹을 수 있음

2. 제사장들이 어겼다(민28:9-10). 안식일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안식을 지키지 않음

3. 주님의 의도: 공휴와 필요에 따라 어겨도 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은 왕, 제사장, 대언자

예표로 다윗은 예수님처럼 왕, 제사장,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행2:30).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다.

### 5-8절: 공휴를 원한다

안식일 개념을 부수신다: 전통을 부수려고, 공휴를 보시려고

공휴를 원한다(호6:6). 두 번째 나온다(마9:13).

안식일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표시,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휴를 보여 준다.

공휴를 베풀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창2:1-3). 즉 그분과 여호와와는 같다.

### 10-13절: 안식일에 병을 고침

눅13:11-17, 안식일에 여인의 병을 고침

12절이 요약임, 악을 행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 악하다.

종교인들을 지혜로 다루기 시작하심

### 14-16절: 바리새인들의 협의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 종교 집단 혹은 무리

바리새인을 오해하면 안 된다. 원래는 다 좋은 의도로 모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사람들,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함

모세 오경 율법 정리: 총 613개(해아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것들을 외우면 좋은 신도, 외우지 못하면 나쁜 신도

그들만의 리그 형성, 이러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마23:23)  
바울의 고백(빌3:5-6).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 긍휼이 없다.

**17-21절: 상한 갈대**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사역이 끝나고 이방인들을 다루시려는 곳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분은 다루지 않는다. 소리치지 않는다(온유하다).

우리는 상한 갈대, 연기 나는 심지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야 한다.

영적인 적용, 문자적인 적용(공의를 베푸실 때까지), 공의는 판단의 공의

이방인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마15:21-28).

**22-30절: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마귀 병이 있다.**

고쳐 주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마1:1; 눅3:), 메시아가 아니냐?

바리새인들의 편견: 이 기적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유: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교회를 나간  
다, 교통사고 난다고 겁박)

죄인들과 함께 먹으므로(마9:11)

**25-28절: 사탄이 분열되면**

분열하는 왕국, 도시, 집은 망한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느냐? 말도 안 된다.

사탄은 왕국이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이다(마4:8-9; 요12:31).

바알세불: 마귀들의 통치자(27)

너희 아들들은 마귀를 내쫓고는 하나님을 자랑한다(행19:13-16).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어떠냐? 더 자랑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에게 어떻게 판단할지 물어봐라(12:39-42 참조).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눅11:20).

왕국(통치), 눅17:20-21, 결론: 내가 하나님으로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31-32절: 신성모독 죄, 보통 성령 훼방 죄라고 말한다.**

1. 여기의 죄는 ‘말하는 죄’이다: 간음, 자살, 거짓말 등의 죄가 아니다.

2. 이것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죄가 아니다.

막3:30이 핵심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령 훼방 죄는 예수님이 부정한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방언하는 자들, 틀렸다고 하면 성령 훼방 죄 운운 No!

이 죄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왕국을 선포하는 동안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이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 마태복음 맥잡기 14

8장부터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어울리며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  
메시아 표적, 안식일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자들 질책,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종교인들의 반응: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통해 병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는다. 이유: 안식일 비준수  
앞으로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긴장과 갈등, 가면서 점점 더 고조됨

12장 33-34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독사들의 세대: 세대(generation), 나온 자들(마1:1; 시22:30; 사53:8, 10)  
창6:9, 그에게서 난 자들, 그 당시 사람들, 마12:39의 음란한 세대, 17:17, 행13:36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렘5:31; 사56:9-12).

35-37절: 선한 보고, 악한 보고(눅2:5), 하나님의 말씀, 보고는 쌓아 두는 곳  
쓸데없는 말, 심판 날에 회계 보고를 한다. 네 말들로 심판을 받는다(악한 보고).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약3:1-12, 골4:6

38-42절: 쓸데없는 말의 예,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38)

표적은 주로 이스라엘과 상관(고전1:22).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다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39).  
원래는 간음하는 세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는 것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이다(눅2:34):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산 것으로(욘2:2; 6, 9 등)  
고래, 케토스, 명백한 고래

'고래'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ketos'이며 '물고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ichthus'이다.

요나서의 큰 물고기, 물고기(fish)(욘1:17; 2:10): 물에서 움직이는 생명체(OED)

과학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물고기 즉 'fish'는 바늘 달린 어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ish'를 '어류'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채 200년도 되지 않았다.

아담은 단 하나의 생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창2:19, 20).

창1:21에서 하나님은 직접 고래에게 이름을 주셨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 - 지옥 - 에 가신다. 눅23:43"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한 때는 수요일 주장, 그러나 여러 증거들이 목요일 사망

예수님은 목요일 3시경에 죽으셔서 주일 새벽까지 세 밤과 세 낮을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오전 6시에  
부활하셨다. 이때가 바로 첫째 날의 시작이다. 날의 시작은 저녁부터이다(창1:5, 8 등).

엡4:8-10

낙원을 옮기심, 아블라함의 품(눅16), 구약 시대 성도들이 가던 곳

신약시대는 죽자마자 주님께로 간다(빌1:20-23; 고후5:7).

니느웨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에 이교도들이 일어난다. 불신자들 천년왕국 이후 흰 왕좌 심판 때  
로마서 2:26-27

요나보다 더 크다: 동정심, 태도 등

남쪽의 여왕: 세바의 여왕,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 지금의 예멘

이 여인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악한 유대인 세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왔다. 이스라엘은 당사자를 직접 보았다.

멀리서 왔다. 눈앞에서 봤다.

많은 비용을 들였다. 무비용으로 그냥 보았다.

죽을 자에게 왔다. 죄를 용서하는 분에게 왔다.

43-45절: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 사탄과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람의 몸을 집이라 부른다. 축사를 해야 하는가?

신약성경에는 마귀를 쫓아야 한다는 명령이 없다. 그 일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들어와 그를 지배할 수 없다.

비그리스도인의 경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의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난다.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마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해도 이 사람에게 축사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제 정신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쫓겨나간다.

46-50절: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육신의 관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공생애를 살고 계신다(요19:25-27).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the Virgin)가 아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있다(마13:55; 요2:12; 7:3, 5). 마1:25의 fistborn 사촌

공생애에 들어가신 이후로 그분은 마리아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다(요2:4; 19:26).

사도행전 1:14 이후에도 마리아는 경배를 받지 않았다.

마리아는 가장 큰 오해를 받는 인물: 존경의 대상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천주교회: 마리아에게 기도, 공동 구원자, 공동 중보자 등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장들 소개

천주교회의 두 예수, 아기 예수 혹은 무서운 예수

무서운 예수님, 자비로운 어머니: 갈릴리 가나 잔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To Jesus Through Mary"

마리아 무염시대(1854년), 마리아 몽소승천(1951년), 마리아 재림(?)

성경의 마리아: 죄 있는 인간(눅1:46-47)

<천주교의 유래> 바빌론 미스터리 종교, 여러 장 소개

이 모든 책들 무료 PDF 킵바이블 닷컴

원래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출발함. 바빌론의 시작과 멸망(창11장, 계17:1-6)

바빌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곳, 메소포타미아

니므롯(창10:8-10)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담무스라고 불렀다(겔8:14). 여자의 씨(창3:15)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이집트(이시스와 호루스), 중국(싱무, 성모), 인도(데바키), 로마(비너스와 주피터)

이스라엘의 아스다롯(삿2:13)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 렘44:17-19

에베소 교회(계2:1-7), 첫 사랑을 잃은 교회

에베소의 다이애나(행19:27), 기독교의 배교: 313년의 로마 국교

이교도들의 어미와 아기 숭배 요구,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함

주후 431년의 에베소 공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였다.

에베소 교회가 사라짐(계2:5).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마귀의 걸작

## 마태복음 맥잡기 15

### 마태복음 제13장

왕국의 복음 선포, 유대인들의 반대 증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것을 스스로 아신다. 16장에 나온다.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자들의 질문: “우리가 선포해 온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먼저 비유로 왕국에 대해 설명하시고 뒤에 십자가 설명

이 날 하루에 7개 비유 말씀, 이전에도 비유 사용, 그런데 이날은 유독 7개나 한꺼번에(씨 뿌리는 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숨겨진 보물, 비싼 진주, 그물 등)

비유: 진리를 보여 주기 위해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

마13장의 비유들은 보통 비유와는 조금 다르다. 이 비유들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설명(11)

신비: 하나님께서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진리(교회의 신비, 결혼의 신비 등)

앞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될 왕국의 복음의 행로를 보여 주신다.

성경의 구조: 초림, 재림, 그 사이에 교회 시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수용했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 땅 끝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교회를 세우심,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 시대, 여전히 하늘의 왕국 프로그램이 진행됨, 다만 좋은 것과 나쁜 것, 진리와 거짓이 혼합된

상태, 기독교(Christianity)가 아니라 기독교계(Christendom),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면서도

거짓이 포함된 체제, 시대(기독교, 천주교, 몰몬, 안식교 등)

### 왕국의 비유 종류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 신비로 들어간 교회 시대의 하늘의 왕국의 진행 경로를 보여 줌

참고로 왕국의 비유들(총 12가지, 이스라엘의 수자): 씨 뿌리는 자(13:1), 겨자씨(13:31), 누룩

(13:33),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옴.

알곡과 가라지(13:36), 보물(13:44), 진주(13:45), 그물(13:47), 이 7개는 어느 면에서 교회 시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종(18:23), 포도원 품꾼들(20:1), 혼인 잔치(22:1), 열 처녀(25:1, 달란트

(25:14): 5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13장은 하늘의 왕국, 왕국의 세 단계, 왕국의 시작, 반대, 결과

### 1-8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왕국의 시작

다른 비유 시작: 하늘의 왕국은 마치..과 같으니라(24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외, 이제 어떻게 왕국이 시작되는지 보여 줌

씨 뿌리는 자: 그리스도, 씨: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왕국의 말씀이다(19절).

교회가 아니다(11절 참조). 다만 막4:11, 눅8:10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은 교회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 4-9 네 종류의 씨

1. 부주의한 자들(4절): 길가에 떨어진 자, 헤룟과 빌라도, 19절, 사악한 자(새들, 날짐승들) 비 구원자

2. 잠정적인 자들(5,6절): 돌밭, 마술사 시몬(행8장), 20-21절, 말씀으로 인한 핏박을 못 견딤

3. 세상적인 자들(7절): 가시나무(딤후4:10의 테마), 22절,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음

4. 진지한 자들(8절): 옥토(가룟 유다를 제외한 주님의 제자들 등)

5. 구원, 왕국 통치를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이다(8절). 거룩함, 인격의 변화, 선한 행위, 전도, 교회 교제 섬김 등

6. 13장에만 들으라는 말이 무려 10번 이상 나온다(9, 18 등).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11절)

왕이 없는 동안 이 땅에 있을 일들을 묘사한다(마25:14-30; 눅19:11-27).

모두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밭은 세상을 가리킴에 유의해야 한다(38).

### 10-13 비유의 목적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요9:40,41; 행28:25-28).

제자들: 침례자 요한의 회개 메시지와 침례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

마음이 딱딱하면 그대로 굳고 만다. 세발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 14-17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

사6:9-10, 마13:14-15, 요12:39-40, 행28:26-27

마음이 waxed gross: 기름덩이로 심장이 굳어지는 것

귀가 둔하다 dull hearing: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여기의 회심(15)은 문맥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심이다(슌12-14장).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17절): 왕과 왕국의 도래를 보지 못했다.

왕국에 대한 반대와 핍박(24-43),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 24-30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귀가 주님의 일을 망치려고 첩자들을 뿌림(고후11:13-15)

해석: 36-43절

1. 밭은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다(38).

2. 왕국의 자손들: 1차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3.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있다(38).

4.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39)

5. 수확은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 환난기의 끝(39)

6. 가라지: 잡초가 아니라 실제와 거의 유사한 식물이다. 수확 때에 갈라진다.

7. 가라지를 모아 불태운다(40). 불타는 용광로: 지옥(마18:8; 막9:44-48 등), 지옥 불의 심판: 문자 그대로의 뜨거운 불

8. 천사들(계14장; 마24:30-31)

9. 의로운 자들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단12:1-5).

10. 듣는 것이 중요하다(43절).

### 31-32,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상징, 결국 큰 식물이 되지만 나무는 아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눅13:18-19, 정원), 채소가 나무가 되는 괴현상이 발생한다.

큰 나무, 날짐승들(13:4, 19, 32)은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파고 들어온다.

나무: 단4:19-27, 통치가 확장되는 것, 세상 왕국 혹은 통치가 확장되는 것, 커지긴 커지는데 악한 자들이 동시에 파고 들어온다.

천주교회의 해석: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는 교회이다. 모두가 거한다.

겨자씨와 누룩은 교회의 확장을 뜻하지 않는다. ★★★

오히려 신약성경은 세상 끝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함을 가르친다.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움

### 33, 누룩 비유

성경의 누룩: 부패시키는 물질(총 23회, 출12:15부터)

거짓 교리: 마16:6-12; 고전5:6-8; 갈5:9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부른다(마23:9). 형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마 23:14). 사람의 전통을 말씀보다 우위에 둔다(마23:5).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행23:8).

누룩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성경의 말씀 상징: 음식, 빵, 꿀, 젖, 사과

여자: 성경의 교회는 여자가 아니라 항상 신부요, 처녀이다(고후11:1-3)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같은 여자(계2:20), 계17장의 음녀(17:3,4,7,18 등)

눅13:20,21에도 누룩이 나온다.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교회에도 거짓 교리가 있다.

주의 만찬에서도 누룩 없는 빵과 포도 주스를 사용한다.

### 왕국의 결과

세상 끝의 세 종류의 사람들: 교회(휴거),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

#### 44, 밭에 숨긴 보물

보통 해석: 죄인 그리스도 발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사서 구원받는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으신다(삭개오, 눅19:10). 구원을 돈 주고 노력으로 살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샀다.

밭: 세상, 사람: 그리스도, 보물(보배): 이스라엘(출19:5)

보배는 세상에 숨겨졌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세상)을 산 뒤에 그의 것이 된다.

세상 속에 참되게 믿는 이스라엘이 숨겨져 있다(롬11:25). 구원받은 유대인, (교회의 일부), 환난기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천년왕국

#### 45-46, 값비싼 진주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 기간에 예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산 사람들 즉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진주 자체를 산다. 세상(밭)이 아니다.

#### 47-50, 그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세상의 끝, 천사들

휴거 이후 맨 마지막에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 이들은 천년왕국

총 12개의 비유 중 7개가 13장에 나와 있다: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경고

나머지 5개: 환난기에 들어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 51-52, 좋은 서기관

서기관: 성격 기록 카피하는 사람, 아마도 서기관 에스라 시대 이후로 등장, 복사, 교육, 전수 등  
그러다가 전통에 매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함(눅11:46-52), 율법사와 비슷한 무리, 죽은  
정통 교수

좋은 자가 있고(스7:6) 나쁜 자가 있다.

서기관은 집주인이다. 무언가를 맡은 청지기이다(눅16:1-12).

그의 보고는 말씀의 보고이다. 앞뒤 문맥상 신구약 성경으로 볼 수 있다.

서기관은 그 말씀을 배급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 시대 성도들 즉 제자들의 책무이다.

## 마태복음 맥잡기 16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설립, 교회는 아직 언급조차 없다. 유대인들에게만

(\*) 마태복음에는 총 12가지의 왕국의 비유들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 신비로 들어간 교회 시대의 하늘의 왕국의 진행 경로를 보여 줌

13장은 왕국의 세 단계, 왕국의 시작, 반대, 결과

(\*) 교회 시대 그림 설명

시작: 왕국의 씨를 뿌리는 자, 반대 및 선한 것과 와 악한 것의 공존: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교회 시대의 특징

결과: 보물(13:44), 진주(13:45), 그물(13:47)

이 외에 마태복음에는 용서하지 않는 종(18:23), 포도원 품꾼들(20:1), 혼인 잔치(22:1), 열 처녀(25:1), 달란트(25:14): 5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 하늘의 왕국: 예수님 당시의 하늘의 왕국,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왕국의 연기 기간), 실제의 하늘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교회 기간): 이 왕국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며 그 범위는 우리가 기독교계(Christendom)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이때에는 선과 악(반죽과 누룩),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서로 섞여 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예비되었다(마25:34). 첫 아담을 통해 이루시려던 왕국, 첫 아담 실패  
하나님의 왕국: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눅17:20-21). 이것은 새로운 출생(요3:5)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롬14:17).

교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선택되었다(엡1:4).

교회와 왕국은 같지 않다. 이 둘을 혼동하면 문제가 생긴다.

천주교회의 신학: 이 둘이 같다. 어거스틴, 교황의 왕국, 무천년주의  
이로 인한 신학의 황폐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학을 따른다.

이스라엘 대체신학

34, 35, '비유가 없이는'과 '비유가 아니면'의 차이

마태는 35절에서 시78:1-3 인용, 아삽의 시

비유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된다: 신천지(본인들만 안다) 등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잠2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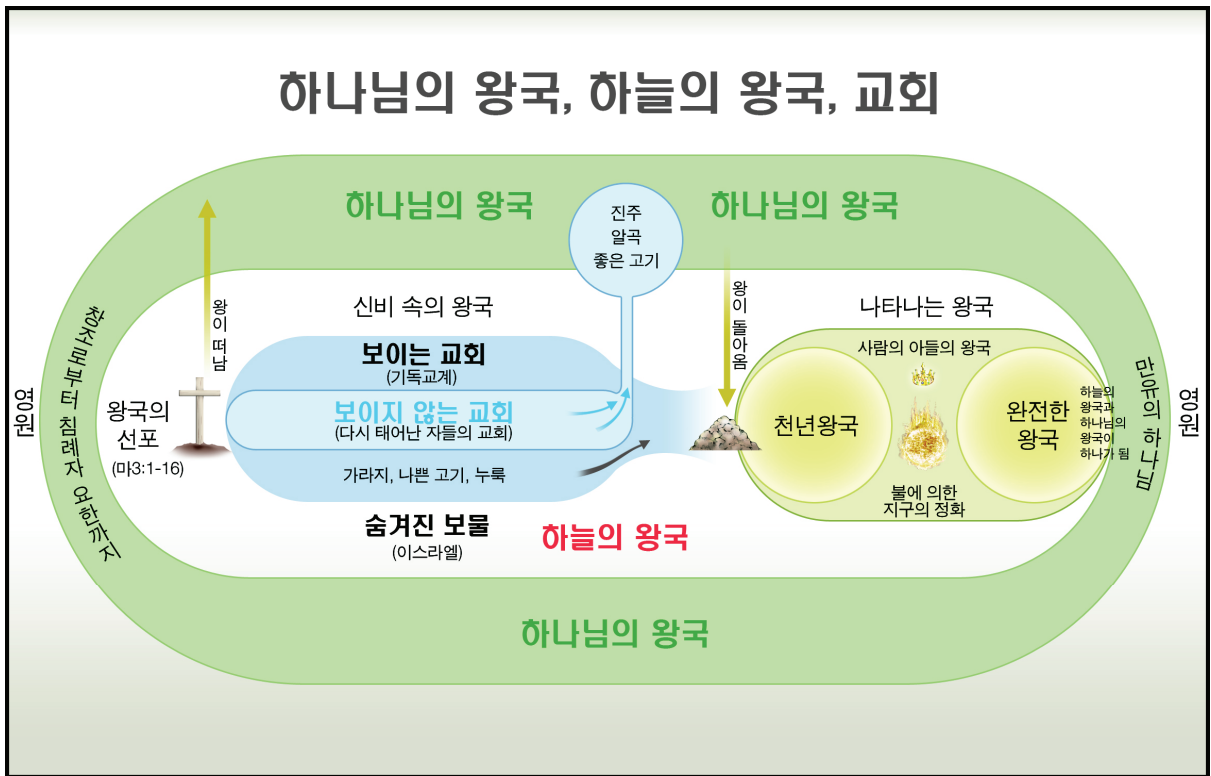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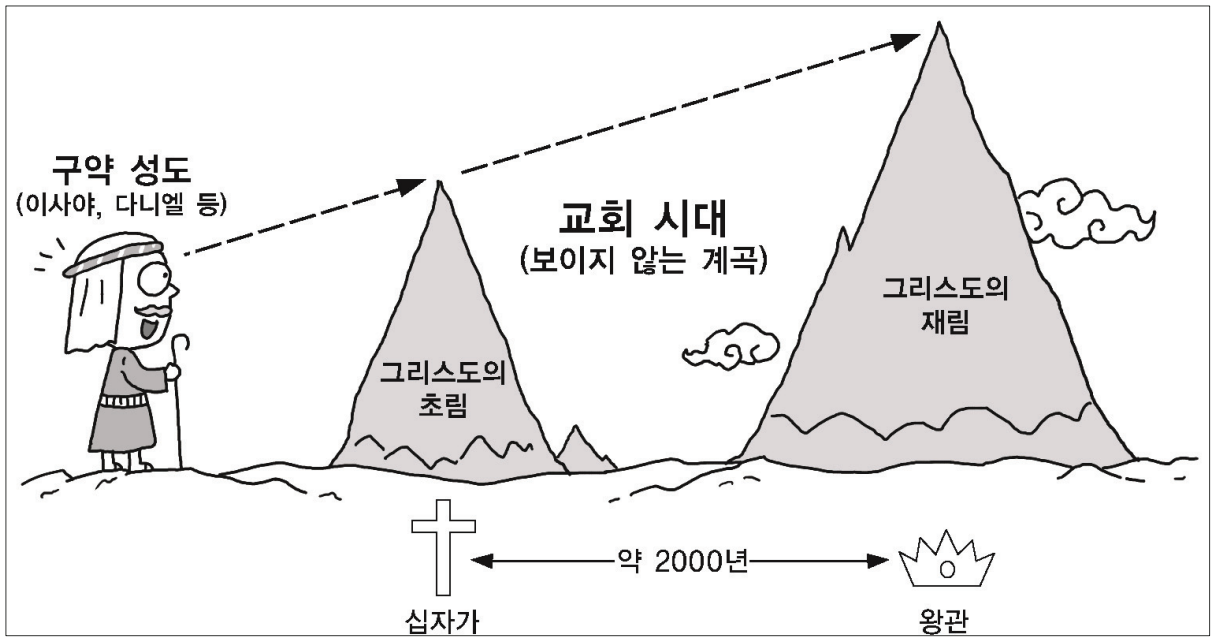
without a parable,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이 맞는 번역이다.

심지어 NIV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53-58, 내 형제와 어머니, 자기 고향: 나사렛

55절: 그분의 형제들 이름까지, 요셉이 아니라 요세이다.

그분의 누이들도 있었다(막6:3).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다.





마태복음 14장

1-7, 헤롯 안디바 이야기, 헤롯 설명 필요

사분 영주: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사분의 일을 다스리는 통치자. 헤롯의 사후 그의 영토는 세 아들과 한 딸에게 분배가 됨, 로마 황제의 권위 하에서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호칭을 붙이기도 함, (\*) 신약 시대의 땅 한영 15쪽, 스티디39쪽 설명



(\*) ● 헤롯: 로마의 통치 밑에서 유대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네 명의 통치자의 이름. 혈통: 에돔 사람

I. 헤롯 대왕(마2:1-23; 눅1:5).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은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다. 그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서 유대를 차지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장식하며 여러 도시를 짓고 확장했지만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를 열고자 했고 예루살렘에 극장과 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므로 유대인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헤롯은 아주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두 딸과 아내를 죽이고 또 죽을 때가 이르자 많은 충성된 신하들을 예리고의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르는 자기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고 헤롯은 그로부터 닷새 뒤에 68세의 나이로 37년간의 왕 노릇을 마치고 주후 2년에 죽었다. 바로 이 왕의 시대에 예수님께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가 죽은 뒤에 유대, 이두매아,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의 왕국의 절반은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돌아갔고(마2:22) 나머지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다른 두 아들 즉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돌아갔다. 안디바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고 빌립은 바타네아와 드라고닛(드라고니티스)과 아우라니티스 즉 요르단 동쪽과 북쪽을 다스렸다.

II.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전 남편, 가이사라 빌립보

III. 헤롯 안디바(눅3:1).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켈라오의 형제였으며 갈릴리 사람인 우리 주님은 그의 사법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눅23:6-12). 그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들음(2),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 자기가 죽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강력한 일들(마귀, 병자, 죽은 자를 살림)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과정(3-12), 막 6을 보라.

원래 안디바는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다의 딸과 결혼했다가 후에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져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부추겨서 빌립을 떠나게 하고 그녀와 같이 살았다.

3절 말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였다.

율법에 어긋난다(4절: 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레18:16).

한때 헤롯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막6:20).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다. 중동의 벨리 댄스, 헤롯은 여기에 걸려 넘어갔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다.

## 마태복음 맥잡기 17

지난 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침례자 요한의 죽음, 헤롯 가문 설명

14장 계속해서 메시아 표적: 오병이어(13-21), 바다 위를 걸으심(22-33), 병자들을 고치심(34-36)  
14:13-21, 오병이어(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기적, 막6, 눅9, 요6,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불쌍히 여기셨다(14절, moved with compassion; 9:36; 18:27; 막1:41; 6:34 등).

원래 말은 내장이 찢어지는 것을 뜻한다. 백성들로 인해 심장, 간, 폐, 위, 소장, 대장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뜻이다.

말씀 선포자의 태도, 킁킁대고 코미디 하고 쓸데없는 예를 드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표적이다(요6:14).

제자들의 어려움: 광야, 5000명, 최선의 제안(15)

예언적으로는 환난기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는 것을 보여 준다(계12:1-15; 렘50:19,20).

하나님의 일(기적) 1.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한다. 2.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3.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4. 결과를 보존해서 남겨두어 기억한다.

바다 위를 걸으심(22-33), 제자들의 고백(33), 하나님의 아들(요5:17-18), 자연계도 주인에게 순종 병자들을 고치심(34-36)

## 마태복음 15장

종교인들(1절 서기관, 바리새인)과의 충돌

1-2, 장로들의 전통, 예수님의 교리와 권위에 대한 질문

장로들의 전통(막7:1-11): 유대인들의 전통, 예를 들어 먹기 전에 씻는 것(2)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씻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명령으로 주어졌다(요2:6).

3-6, 너희 전통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3, 막7:13)

좋은 전통(살후2:1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아이들을 예절 있게 키우는 것, 단정하게 말하고 입는 것

나쁜 전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천주교회, 교부들, 교황들의 전통 등 부모를 공경하라(4, 출20:12; 21:17 등).

고르반(잠28:24; 신14:22-26), 원래 뜻, 예물(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것(딤후5:8)

7-9, 사람들의 명령(사29:13)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헛되이 내게 경배한다(롬10:1-3).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 만든 전통은 없는가?

10-14,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18-19).

바리새인들이 실족하였다: 자기들은 다 의롭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마다 뿌리째 뽑힌다(13, 마23:15).

눈 먼 자들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14).

이들의 개종자들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둘 다 도랑에 빠진다. 지옥 행(마23:15)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국가, 정치, 교회, 롬13:1-7; 딤후2:1-3).

15-20,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요6:63).

먹은 것은 배설물로 빠져 나가면 끝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요점: 마음이 문제다(렘17:9-10, 잠4:23).

#### 21-24, 가나안 여인의 소원

수로보니게 여인(막7:26), 그리스 시민, 시돈 사람, 이방인

예수님을 알아본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요8:6).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졌다. 문자 그대로...

#### 25-28,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짐

예수님께 경배하는데도 여전히 거절하시고 심히 수치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라니?

응답받는 기도의 요점: 1. 포인트가 있다(27). 2, 이유는 믿음이다(28).

큰 믿음의 소유자는 다 이방인, 백부장(마8:5-13), 가나안 여인

이런 것들을 통해 이방인 구원 예시(엡2:11)

#### 15장 요약

1. 주님의 원수는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 고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함
2.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부인하는 종교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속박한다.
3.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예배 조심
4. 속사람을 강진하게 하면 겉 사람은 자동으로 좋게 된다. 반대는 불가능
5.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심히 어렵다. 베드로(갈2:11-13), 그러므로 노력을 해야 한다.
6.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롬1:16; 15:8-9)

## 마태복음 맥잡기 18

지난 주: 4복음서, 예수님의 언행,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낸다(요14:1-11),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9).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요10:30)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된다(마15:6). 망하는 길

### 마태복음 16장

1-4, 표적을 보여 달라는 군중,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 주님의 대답(4)

5-12절에는 종교인들의 누룩 이야기가 나온다.

6.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보수적인 종교인, 영과 부활을 믿는다(행23).

사두개인: 자유주의 종교인, 영과 부활을 안 믿는다(행23).

두 부류 모두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위에 둬, 위선자

7-10, 제자들의 오해

문자적으로 취할 것과 영적으로 취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인 누룩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진짜 빵을 이야기한다.

12절을 보라.

11-12, 교리의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의 상징으로 나온다. 부패시키는 것(고전5:6-8)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56회, 주로 신약).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교리를 위협한 것으로 가르친다.

딤후3:16, 딤후2:15; 딤후4:15-16, 롬16:17-18 등 참조

특히 말세에는 거짓 교리가 유행하게 되어 있다(딤후4:1-5; 계3:16-21; 마24:11, 24 등).

성경 본문 변화는 특히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변화를 가져온다. NIV 등 현대 역본들

예수님의 신성, 구원, 속죄, 지옥, 천국, 마귀 등(요일5:7; 행8:37; 막9:44, 46; 벰전2:2)

13-18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처음 나오는 말씀

13-15, 아마도 공생애의 끝 부분, 아마 3년 쯤 지남. 유대인 사역의 끝

가이사랴 빌립보, 팔레스타인의 북쪽 도시, 지금은 파니아스, 구약에서는 ‘단’으로 불리던 곳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자 요한: 헤롯의 의견(14:1-2), 엘리야: 말4:5

예레미야: 특이한 대언자, 눈물의 대언자,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 받은 대언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이 여기에 달려 있다.

이 대답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기독교의 4대 성인, 착하게 산 사람,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

요17:3, 영생의 정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16-18,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에 왕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다.

영어에는 그 그리스도 정관사 THE, 구약시대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함을 뜻한다(요5:17-18).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No!

출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메시아요, 100% 사람의 몸을 입으신 100% 하나님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 이것을 계시해 준 것은 살과 피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다(17).

사도 바울의 고백(갈1:1; 13), 교회 출석, 세례, 헌금, 주일 성수 No!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살과 피의 문제가 아니다(요1:12-13).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전15:50).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사건 전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나다나엘(요1:49),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제자들 폭풍우(마14:33), 하나님의 아들 등

이 고백의 중요성: 1. 주님이 직접 물으신 데 대한 대답, 2. 이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짐

### 베드로가 세운 교회?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Petra)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천주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유일한 교회이다. 교황권 계승

베드로가 부인한다. 반석은 그리스도(벰전2:4,8).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교황=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바울, 반석은 그리스도이다(고전10:1-4).

예수님, 반석은 그리스도이다(마21:42,44, 단2:44-45)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다.

베드로의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한다.

교회(church): 단수 총 77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복수 총 37회, 행9:31~계22:16, 출 114회

성경의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만 117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신약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1. 예수님의 몸(신부; 엡1:22-23; 고전12:27), 2. 지역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예수님 몸의 지체, 구원받은 모든 사람(시대, 지역,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초월)

교회에 속하는 방법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다(고전12:13).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의 니고데모).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헌금하고 주일성수하는 것, 전통으로 나가는 것 등 No!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만 그 일이 가능함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만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이때에 성령님 속으로 잠기는 일이 생기면서 성령 침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허사, 구원 No!

물 침례(세례)는 성령 침례에 대한 증언이다.

2. 지역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구원을 받아도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침례 세례, 킹제임스 성경, 다른 성경, 목사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록 음악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 단정하게 오는 교회, 아무 말 안 하는 교회,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거룩함을 강조하는 교회

#### 지역 교회에 모이는 목적(엡4:12)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 지역 교회

일차적으로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신자를 위한 모임이다(엡4:12).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다. 말씀 선포/설명 중심이다(딤후4:2).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성화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골1:28; 엡4:13-15)

#### 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이다(고전14:26).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건강한 유기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 그리스도의 몸(고전12:12)

모든 지체가 살아 있다(요일5:12; 같은 성령(롬8:9)).

머리가 명령한다(골1:18).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다르다(고전12:15-16).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전12:21).

한 지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전12:26).

## 마태복음 맥잡기 19

지난 주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 혹은 믿음 고백, 지옥의 문들...

19-20,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준다

교황의 해석: 베드로는 초대 교황, 교황을 통해서(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열쇠들은 문을 열고 닫는 데 쓰인다.

문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기회를 뜻한다(고전16:9; 고후2:12; 계3:7-8). 즉 복음 선포의 기회를 뜻한다.

또한 하늘(천국)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마3:2; 4:17).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받았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행2(유대인), 행10(고넬료 이방인), 행15장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권능: 마18:18을 보면 이것은 열두 제자(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에게 주어진다.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다.

요20:23을 보면 죄를 사면하고 그대로 두는 권능은 12명 이상에게 주어진다.

죄를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다. 전 성도 제사장직(벧전2:9)

21-23,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에 비로소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미래 예측

성경은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2)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3) 죽임을 당하며 (4)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5) 이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6)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것을 예언하신다.

제자들에게는 큰 쇼크, 왕으로 모셔온 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것(눅24:26; 46-47; 벧전 1:10-11),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 특히 오순절주의자들(기복 신앙)의 문제: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는 것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타원과 같다.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사61:1-2), 고난 다음에 영광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의 사탄(행5:3의 아나니아; 삼상18:10의 사울).

베드로를 수장으로 두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서 난 일들: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 예배, 육신을 죽이는 것(갈2:20; 6:14)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 초보적인 사람들, 고전3:1-4, 히5:12-6:1-2

마귀의 주요 관심사: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배를 받고자 한다.

24-26,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4-25는 10:38,39의 반복,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

예수님께서 오려면 십자가를 진 무리에 속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롬12:1-2 참조

생명(25), 혼(26), 생명이 혼이다. 사람 자체

성경의 혼은 사람 자체(창2:7), 사람을 구성하는 세 부분 중 하나, 사람의 세 요소 중 하나

자기 혼: 사람의 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요소,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알렉산더, 카이사르, 칭기즈 칸, 나폴레옹, 이순신, 세종대왕, 스티브 잡스, 이병철

혼을 잃으면 그 혼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그 혼이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눅16 부자

27-28, 영광 중에 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온다. 천사들과 함께(마24:30; 롬8:18)  
행위대로 갠아준다. 믿음의 행위이다(고전3:5-10; 마25:30-41; 계22:12).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오는 것을 본다(28, 마17:1-16).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계시록(계1:17)  
하나님의 최종 목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

### 마태복음 17장

#### 1-3,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됨

옛새 뒤에, 눅9:28 여드레쯤 되어, 이레로 보면 된다.

몸이 변화됨: 계1:14-16; 벨후1:16-17; 출19 세 가지 영광 왕, 왕국, 십자가(눅9:31)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 인물, 계시록 11장의 재림 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 4-5,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가 안 된다(히3:1-6).

그의 말을 들으라(요1:14-18). 신18:15, 히1:1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다. 요나의 표적

#### 10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말라기 4장 말씀, 마11:13-14, 특별히 14절

#### 12-13, 엘리야가 이미 왔다

침례자 요한에게 한 것처럼 할 것이다.

#### 14-16, 마귀 들린 소년, 세 복음서 기록

마귀가 하는 일: 사람을 불 속으로 쓰러뜨리고 물에 빠지게 한다.

#### 17-21, 마귀를 내쫓음

예수님의 긍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제자들과 유대인들

마귀를 내쫓는 일(막5:13; 16:9; 행19:13-16), 메시아 표적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런 권능이 특별한 경우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마10:8).

그런데 사라지기도 했다(마17:18-19).

그 이유: 이 소년은 특별한 경우이다. 기도와 금식이 더해져야 했다.

조심할 것: 일반화하면 안 된다.

#### 21절은 대다수 현대역본에는 없다. 없음 처리, 신약에만 총 13구절

성경은 두 종류가 있다. 천주교 계열, 종교개혁 계열, '없음'이 있는 성경과 '없음'이 없는 성경  
교훈: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겨자씨 믿음이 큰일을 한다. 크고 작고가 아니라 생명과 성장, 불신이 기도의 방해물이다.



## 마태복음 맥잡기 20

지난 주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처음 예고(16:21)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24). 혼의 중요성(26)

변화산 예고(28), 변화산 사건(17:1-13), 모세와 엘리야, 죽음(별세)에 대해 이야기함

17장 22-23절, 죽음과 부활 다시 언급, 마16:21, 20:17-18,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24-27, 공세 내는 문제, 마22:15-22의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 설명 시(롬13장과 함께)

베드로는 낚시로 그 많은 고기 중에서 동전을 물고 있는 고기를 끌어올린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

### 마태복음 18장

1-6, 누가 가장 큰가? 겸손의 문제, 하늘의 왕국(1),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다.

여기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 1. 회심이 필요하다(3). 2.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3).

회심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3절). 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의 특성: 자기를 낮춘다(시131편, 눅10:21; 롬12:16; 벰전2:1-3).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성정을 배운다.

아이들도 성경 기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딤후3:14-16).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전1:19-21).

### 아이들의 구원

어른들의 구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3) born again

“아이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Obey)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써 ‘받아들이는’(Receive) 사람은 누구든지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옥 정죄가 떨어질까?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원죄는 아담의 죄,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원죄는 몸의 사망을 가져온다.

지옥에 가는 것은 모두 자기의 죄 때문이다. 둘째 사망은 자기 죄 때문에.

아이들은 롬10:9-10, 13처럼 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세리, 창녀, 강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수님은 아이들의 구원에도 큰 관심이 있다(마18:14).

하나님 앞에 회계 보고할 수 있는 능력(Accountability) 이후에 born again 필요

아이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회계 보고할 책임을 질까?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accountability, 신1:34-39, 삼하12:23

정신박약아도 모두 구원 받는다. 낙태된 아이들도 모두 구원받는다.

### 10-14, 잃어버린 양

1-6절의 연장,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히1:14), 11절 현대역본들 삭제: 예수님 사역의 목적

길 잃은 양: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99명은 버려두고 1명을 찾으러 가는가? 99는 덜 중요하고 1은 더 중요한가?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은 7-9절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문제이다.

약한 자들에 대한 것이다.

### 15-20, 범법하는 형제 처리

1. 둘이서 해결(15), 2.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해결(16), 3. 교회에게 말하고 여전히 안 들으면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라(17).

두 종류의 용서:

1. 무조건적인 용서: 개인적인 일,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한다(엡4:31-32). 최소한 그리하도록 명령을

받음

2. 조건적인 용서: 교회 차원의 용서, 두 번의 기회를 갖는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문제  
교회는 묶고 푸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18). 이것은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다(마16:19).  
17절의 이교도나 세리를 보면 이 구절 역시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19절은 기도를 뜻한다.

20절: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교제), 그들의 한 가운데 있다.

주의해야 할 점: 여기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나 여기의 교회는 아직 신약 교회가 아니다.

여기의 교회는 무엇을 뜻할까?

1.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이교도나 세리같이'라는 것을 보면(17절)
2.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구분되어 분리된 모임,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야구 선수 9명 축구 선수 11명 다 에클레시아, 행7:38의 광야에 있던 교회,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 에클레시아이며 교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 교회는 아니다. 오순절 이후
2.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 교회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17절 등에서 미래를 뜻하는 shall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요약: 권징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여기의 교회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다.

교회의 권징(마18:15-20): 현대 교회에서 게을리 한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

고전5; 살후3:6-16; 딤후2:23-26; 딤후3:10 등

집에서 아이들 징계하듯 하나님의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권징을 할 때는 먼저 자기를 살펴보고 기도해야 한다(19절 의미 심장).

다만 경찰처럼 굴면 안 된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엡4:15).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 위선, 그 반대는 잔인함

초대 교회 문제: 1. 부정직(행5), 2. 힘없는 자 외면(행6),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존재함  
지혜롭게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

디도서의 이단 처리 규정(딤후3:10-11)

21-35, 용서하라

일곱 번만 할까요?(21) 예수님의 대답(22) 70\*7=490번,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용서하라.

하늘의 왕국(23), 여전히 메시아 왕국이다. 만 달란트(약 100억 원), 백 데나리온(500-1000만원)

용서의 원리는 지금도 적용된다. 용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35).

여기의 용서는 구원의 용서가 아니라 형제들 간의 용서

## 마태복음 맥잡기 2

지난 주 18장 아이들의 구원: 회계보고 능력,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 바로 하기

### 마태복음 19장

1-9,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심(1)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 문제 제기(3)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신24:1-4) 유대인 남자들의 생각(눅16:14,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종교적 경건함, 그런데 속은 더럽다).

주님은 모세오경 중 신명기로 가지 않고 창조의 시점을 다른 창세기로 가신다.

즉 이혼 간음 등 결혼 문제를 이해하려면 맨 처음 결혼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막10:5).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1부 1차

창세기 1-3장, 사람 창조, 결혼, 타락 등, 사람의 타락 이전(창3)에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였다(창2).

결혼의 목적: 창조 제상에서 좋지 않았던 것은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창2:18). 여자의 창조

결혼의 목적: 1. 인류 존속(창1:28), 2. 성적 죄 방지(고전7:1-6), 3. 특별히 일부일처: 경건한 자손 배출(말2:15)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예표(엡5:31-32)

남자에게서 여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결혼 요약: 1.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2. 육체적인 결합이다(한 육체). 3. 영원한 결합이다. 4.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5.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번의 결혼을 허락한다(4-6). 명백한 예외는 사망이다(롬7:1-4).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법을 요구하였다(7, 신24:1-4).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명령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강박하므로 이혼을 허락하였을 뿐이다(8).

간음의 경우 둘로 쳐서 죽여야 했다(레20:10; 신22:22; 요8장). 사회의 기본 유닛인 가정 파괴하므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보내는 일 시행(요셉의 경우)

이혼 사유: 구약 시대 유대인의 경우 정혼과 결혼이 있다.

정혼한 경우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9절, 음행) 그 정혼한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이혼: 정상이 참작되는 이혼의 경우가 성경에 있다.

1. 배우자의 음행(마19:9; 고전6:16),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마1:18-19)

2. 배우자가 버리고 떠나는 경우(고전7:15), 불신자가 신자를 버리고 떠날 때, ‘그러나’의 의미  
목사로서: 이 외에 비인간적 린치 행위 등 부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0-12, 고자 문제

제자들의 대답: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것이 유대인 남자들의 생각이었다.

모두가 이 말 -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 을 받을 수는 없다.

Eunuch: 고자(鼓子), 다른 데서는 내시,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남자

1. 태어나면서 고자, 2. 인위적으로 생식 기능을 못하게 한 자(거세 수술), 3. 왕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고전9:1-5)

천주교회에서는 셋째 이유를 들어 신부와 수녀를 정당화시킴, 오리젠(스스로 거세함)

그러나 결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규례: 교회 이전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 특히 목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딤후3:2; 4-5).

베드로도 결혼하였다.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이다(딤후4:1-6). 특히 3절

그러나 짝을 찾지 못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 16-19,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마태, 마가, 누가).

부자, 청년, 치리자, 공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옴, 순순한 동기, 듣고 배우려 함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행16:30) 대단한 종교인,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17) 현대 역본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것에 관하여 묻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17).

명령들을 지켜라(17).

율법의 명령들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롬3:20).

명령들을 언급하신 이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무슨 명령들? 약2:10 이 청년은 외적 준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약1:23).

## 20-22, 다 지켰나이다

마치 회심 전의 바울(빌3:4-7)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갈3:24)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막10:21).

무엇이 부족합니까?(20) 돈, 열정, 학식, 관심, 건강

한 가지가 부족하다(막10:21). "가서 팔아서 주고 다시 오라."

팔아서 돈을 나누어줌으로써 구원 받을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스스로 탐심을 보기 원하신다.

탐내지 말라(출20:17). 이미 명령을 어김, 소유가 그의 우상이었다.

슬퍼하며 돌아갔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마6:24).

## 23-26, 부자의 문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24). 막10:24 설명, 현대 역본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킹제임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재물은 믿음을 멀게 한다.

제자들이 심히 놀란다. 재물이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함. 신26-28, 재물: 순종의 복

어릴 때는 보상과 형벌로 잘하도록 유도한다. 크면 사랑으로 유도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외적 소유는 사람의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부유했으나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늘구멍, 진짜 구멍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다(26). 그들의 상태를 살피신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다(사55:5-8).

부자도 구원받는다: 삭개오, 니고데모, 마태

딤후6:10 돈을 사랑함이 문제의 근원

## 27-30, 부자의 문제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우리는 가난하다.

다시 나게 하는 때(regeneration), 예수님이 치리할 때, 천년왕국 때

땅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남, 사40

왕좌에 앉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좌(눅1:30-35; 사9: )

재판한다. 사사기의 재판관들처럼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 20장 1-16의 비유

베드로의 잘못된 동기, 얻으려고 섬기면 문제가 생긴다.

## 마태복음 맥잡기 22

### 마태복음 20장

지난 주, 부자 청년, 어떻게(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명령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제자들의 반응, 천년왕국에서 통치 그런데 처음인 자가 마지막, 마지막인 자가 처음(30), 대단히 심오하고 심각한 말, 20장에서 설명 1-7,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유대 민족(마21:33; 사5:1-7)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됨.

아침 일찍 고용된 자들: 사도 베드로 등과 같이 일찍 사도가 된 자들

3, 6, 9, 11시(오후 5시)에 고용된 자들: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받는다.

두 종류의 일꾼: 계약을 하고 간 사람(2), 나머지 계약 없이 주는 대로 받았다고 간 사람이 비유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이 비유는 보상을 말하지 않는다(고전3:8).

이 비유는 보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페이를 받을 때의 순서는 반대(8-10)

불평하는 자들(8-11), 이 사람들은 계약을 원했다(2절).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처분을 맡겼다. 베드로처럼 말하지 말라(19:27)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12-16): 처음 마지막, 마지막 처음

교훈: 내가 했으니 이만큼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로 섬기지 말라.

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라. 눅17:7-10, 우리는 무익한 종

#### 20-28. 섬김 사역의 원리: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막15:40; 16:1-2; 마27:56)

여기서 그녀가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왕국과 권세(21)

이들은 무지하였다. 왕관(Crown) 이전에 십자가(Cross)가 있어야 함을 몰랐다. 초림과 재림  
여기의 잔과 침례는 십자가 처형(18-19절)

여기의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가 된다(22).

이들은 자기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은 아는데 하늘의 방법은 모른다.

이들은 마귀의 방법대로 구하였다. 마귀는 왕좌를 구하다가 추방당하였다(사14, 겔28).

우리는 어떤가?

침례의 1차적 의미: 동일시 되는 것, 내가 잠긴 침례로……즉 내가 고통당하는 대로

이들은 열두 왕좌에 앉는다(19:28).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앉는다.

섬기러 왔다(24-28)

나머지 열 제자가 분개함, 크리스천 리더십: 섬기는 자=종=집사

크게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2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말로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얻는다.

바르게 섬기면 바르게 기도한다.

교훈을 배운 살로메는 십자가까지 간다, 부활의 장소에도

#### 29-34, 눈 먼 사람을 고침(막10:46-52, 눅18:35-43)

29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아마도 십자가 처형 전의 마지막 일요일일 것이다.

마태와 마가의 진술이 다르다. 성경이 틀렸을까?

마태: 여리고를 떠날 때에, 마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성경에는 두 개의 여리고가 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왕상16:34), 여기서 1.5km 떨어진 곳에 로마 시대의 여리고가 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여리고, 마가는 로마 시대의 여리고

30절: 다윗의 자손이여,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 표적(사35:5), 눈 먼자의 눈이 열린다.

막10:50 바디매오는 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우리 눈을 열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청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즉시 그들의 눈이 열렸다.

구원도 이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로 돌이키면 즉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 구원받으면 동일한 일이 생긴다.

### 마태복음 21장

이제부터 왕이 공개적으로 거부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1-5, 예루살렘 입성, 유월절 기간,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역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부터는 공적으로 보이신다.

이유: 슥9:9를 성취하시려고(마21:5)

슥9:9 인용,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왕국을 열기 위한 것이다. 구약 성경을 따라 이대로 성취가 될 수도 있었다.

지도자들의 반대로 인해 십자가의 길 성취

원래 스가라의 대언, 크게 기뻐하라.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눅19:41).

이것의 완전 성취는 재림의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슥9:10-11 참조).

6-11,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9, 눅1:31-33: 삼하7:1-17, 사9:6-7; 11:1, 10 등)

호산나: 뜻 지금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9, 메시아 시편 시118:26; 마23:39)

이분이 누구시냐?(10절)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다(막6:3), 불신 유대인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요1:45), 빌립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 바울의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정확한 표현: 1. 대언자(신18:15-18), 2. 대제사장(히3:1; 4:15-16), 3. 왕(계19:16)

12-16, 성전 청소, 예배의 중심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

이방인들의 뜰을 물물교환장소로 바꿈. 좋은 의도가 퇴색되어 장사치들의 뜰이 되고 맴.

사고파는 자들: 희생 제물 짐승(레1)

돈 바꾸는 자들: 이방인들의 돈을 유대인들의 돈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말3:1). '내 집'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보인다.

첫째 성전 청소(요2:16)에서는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사56:7), 재림의 문맥,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강도들의 소굴(렘7:11)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젓먹이들(시8:2)

종교, 정치 놀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눅10:21).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벧전2:1-4)이 더 많은 계시를 갖는다.

전체적인 교훈 요약: 어린아이들같이 순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가 주어진다.

17-22,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다

있을 있는데 열매는 없다.

초점: 잎이 있는데 열매는 없다. 고백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는 없다(약2:26).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 죽은 행위(히9:14, 마7:21-23), 배설물(빌3:8), 누더기(사64:)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부에서 밖으로 하는 일 혹은 행위만 수용된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21-22)

23-27, 예수님의 권위 의심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맡겨졌으므로 이들은 물을 자격이 있다: 무슨 권위

그런데 이들은 매우 무지하였다. 충분한 기간: 3년간의 공생애,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주님은 3년 전의 요한의 침례를 거론한다. 이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를 죽게 만들었다.

요한을 믿지 않으면 나도 못 믿는다. 둘 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한다(눅16).

## 마태복음 맥잡기 23

### 마태복음 21장

지난주, 섬김 사역의 자세, 계약을 맺고 하지 말라. 처음인 자가 마지막,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심,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공생애 마지막 주간: 드디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소,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호소, 종교인들 정죄

이스라엘의 문제: 종교 의식은 많은데 진리가 없다. 입으로는 나오는데 마음은 멀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

1. 먼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거부함으로 아버지 부인(마21:28-32)

2. 그 뒤에 아들을 부인함(마21:33-46)

3. 그 뒤에 성령님 부인(마22:1-14)

### 28-32, 큰아들, 작은 아들

포도원: 이스라엘(사5), 두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민초들(세리, 창녀 등)

침례자 요한이 오자 다른 반응이 나타남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은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음, 민초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눅7:29-30).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 죄: 스스로 회개하지 않음, 죄인들의 변화를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  
요한을 거부한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다. 이유: 종교 지도자들(요12:43)

현대역본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뒤바꿈

### 33-46,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 핵심: 아버지를 거부하면 아들도 거부하는 것을 보여 줌

여전히 포도원 비유(사5:1-7)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함, 영적 물질적 복을 줌, 종들이던 대언자들을 보냄, 그들을 학대함 군대를 보내는 대신 아들을 보내기로 함(히1:1-2)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포도원에서 내쫓고 죽임, 그분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음(요1:11-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물음(40), 그들이 스스로를 정죄함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42절, 사8:14-15; 롬9:32-33; 고전1:23).

그들은 그분을 죽였으나 그분은 부활해서 교회에게 기초석이 되셨다(엡2:20-22; 벧전2:4-5)

그리고 그분은 재림 때에 내려치는 돌로 오셔서 민족들을 부수고 왕국을 세우신다(단2:34).

이스라엘은 그분을 배척한 건축자들이다(행4:11).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는다. 여기의 '너희'는 이스라엘

다른 민족, 교회(벧전2:9),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산산조각 부서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아직 교회가 없다.

### 마태복음 22장

#### 1-14,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비유

해석 시 가장 중요한 것: 문맥, 여전히 하늘의 왕국 이야기(2), 즉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부분이 21:22-46의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 즉 이스라엘과 상관있는 비유로

보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 이야기지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2). 눅14:15-24와는 다른 이야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멸망(2-7),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들이 왔으나 그를 배척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즉 성령님 배척이 남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님의 강림, 사도행전 9장까지 모두 구원받은 유대인

10년 동안 다시 기회를 받았으나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버림

결국 이스라엘을 되돌리려는 스테반을 죽임(행7)

누가: 요한을 죽인 자들,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령님도 배척함(행7:51) 그 결과 유대인들이 밀려나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



AD 70년 드디어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유대인들 흩어짐(마22:7)

8-15절은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이야기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당시(초림),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시대 구분을 잘해야 한다)

환난기의 끝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7년 환난기: 이때 어린양의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있다. 어린양의 신부는 교회

땅에서는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여기의 혼인 잔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고 땅의 백성 이스라엘의 잔치

1000년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유대인들의 기쁨이 되는 때

신랑과 신부가 땅에서 초대받은 자들과 결혼 잔치를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장 기쁜 때

그러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그 당시 결혼에서 동방의 관례; 누구나 혼주가 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예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뜻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7년 환난기를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마24:13).

다시 말해 9-10절은 환난기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고

11-14절은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복이 없는 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13절).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대환난 이후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들(유대인과 이방인)

달란트 비유는 신랑이 오는 이야기, 거기의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신랑이 올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뉘는 일,

양과 염소는 이방인 가운데 나뉘는 일,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지옥 불속 (마25:20, 25;41)

영적인 적용: 복음은 하늘 잔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신다.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5).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다(6).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7).

복음의 메시지: 누구든지 혼인 잔치에 오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다(14).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 의복을 입은 사람은 안 된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의의 옷을 입는다.

예루살렘 입성, 결국 어린양으로 반드시 1월 14일에 죽어야 함

이집트 탈출의 어린양, 14일에 죽이기 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함(출12:3, 10일에 취해서 14일에 죽임)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어린양으로서 흠이 없는지 여부 조사, 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질문

15-22,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십자가 처형 바로 전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그분의 말로 그분을 함정에 넣으려 한다(15).

그 당시 바리새인 로마 정부를 싫어함 1. 이방인, 2. 카이사르는 신, 3.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원함, 그래서 원래는 세금 거부

헤롯 당원(16), 로마 찬성, 세금 찬성,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 거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진다.

아침하는 말로 시작한다(16).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눅20:20) 세금 문제를 다룬다.

세금 문제는 폭탄과 같다.

세금을 내도 된다고 하면 신17:14-20을 범하게 된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나온 왕을 섬겨야 한다.

당연히 카이사르는 유대인이 아니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인지하셨다(막12:15 위선, 눅20:23 간교함)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혼동 속에 넣으신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주님은 국가를 인정하신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국가(정치)의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

이 둘을 혼합하면 문제가 된다. 중세의 국가 교회, 이슬람 국가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정치가 올바르게 없으면 항거해야 한다. 사도행전, 지도자들의 탄압, 사도들의 말(4:19; 5:29)

미국의 독립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 국가는 정교 분리 실시, 국교 없다.

그러나 시민 생활에 정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치 제도 가운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를 제거해서 인민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꾸어 사회주의를

만들면 국가 패망,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하나님 앞에 회계보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 바르게 투표해서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혈연, 지연, 학연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대로 자유를 주는 체제 수호

로마서 13장에 대해서는 유튜브 <로마서 13장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가?>

## 마태복음 맥잡기 24

### 마태복음 22장

지난주, 예루살렘 입성,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 함정 설치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제기, 정교 분리 원칙

#### 23-33,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행23:7-9),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다.

현대인들은 대개 부활을 부인한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단12:2; 13; 마27:52; 고전15:52; 계20:5-6)

기독교 믿음의 핵심, 행1:3 절대확실한 증거, 우리 부활의 근거: 예수님의 부활

구약 시대의 율법,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이름을 위해 아들을 낳게 함(신

25:5-10), 일곱 형제, 모두 한 여인을 취함

이들이 부활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너희가 성경기록들을 알지 못한다(29): 문제의 핵심, 그래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막12:27).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할 것에 대해 가정하고 문제를 일으켜 사람을 괴롭게 함

부활 때에는 그들이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2)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유6), 창6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거인을 출산하였다.

마22:30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음을 나타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결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천사는 성이 없다는 말은 틀리다. 천사는 항상 남성이다(창6; 창18:1, 눅24:4, 23).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약 1000년의 분리 기간이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32).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 있다(눅20:37-38).

바울의 고백: 벨릭스 앞에서 행24:14-15, 아그립바 앞에서 행26:6-8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22:33): 무지하였다.

#### 34-40, 율법사의 시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음(막12:28).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공세 문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잠잠하게 하시고 드디어 서기관 율법사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동경심과 더불어 시험하려는 이중 의도로 나온다.

율법사: 총 613개의 명령(긍정 248개, 부정 365개), 중요한 것, 사소한 것을 분류, 중요한 것만 지키려 함.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가장 큰 명령이냐를 두고 늘 논쟁함

율법의 의미를 모르(약2:10), 한 조목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첫째 명령(신6:5): 하나님을 향한 것, 둘째 명령(레19:18): 사람을 향한 것

이 두 명령은 둘 판들에 쓰인 십계명의 율법과 마음 판에 쓰인(롬2:14-15) 도덕적인 법을 망라한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개에 달려 있다(40절): 모세5경의 요약이다.

바울은 롬13:8-10에서 이 두 명령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됨을 보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보다 먼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 41-46,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아들)이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

목수 요셉의 아들: 희망이 없다. 죽고 만다.

다윗의 자손(아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윗의 질문이 있다. 어떻게 자기 아들(자손)을 주라고 할 수 있느냐?(시110:1).

히브리 성경: 주(여호와)께서 내 주(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옆에 앉는 사람은 메시아(내 주)이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문제: 고난 받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 어떻게 해결할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한 메시아,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인지하지 못했다.

여호와는 주(큐리오스)로 번역해야 한다: 예수님의 실제 번역 예, 전 세계 모든 성경 '주'

시110편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 마태복음 23장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메시아 표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전달

그런데 종교인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가 무서운 것이다.

다 착하게 살려고 한다.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모른다.

그래서 무지 무서운 자들이 된다.

대표 사례가 사도 바울: 많은 성도들을 죽임

23장에는 예수님의 매서운 정죄

1-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 책망

모세의 자리: 회당에 있는 판단하는 자리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그들은 말만 하고 하지는 않는다: 위선자들이다.

성구함: 율법의 말씀들을 담은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그것을 네 손 위의 표적과 네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으라."(출13:9, 16)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결과이다. 팔에 매는 것은 양피지 두루마리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둘둘 말아 검은색 소가죽 통에 넣고 이런 가죽 성구함을 왼손의 팔이 접히는 부분에 묶어서 착용하였다.

유대인들은 네 개의 양피지 조각을 취하고 각각의 조각에 특별 잉크로 네 구절을 적었다: 출13:2-10; 13:11-16; 신6:4-9; 6:13-21. 이 네 구절을 적은 뒤 네 조각을 모아 그 위에 히브리 알파벳 '쉴'을 쓰고 두 개의 줄이 달린 딱딱한 소가죽을 그 위에 놓았다. 그 뒤에 그들은 이 네모난 가죽 성구함을 이마에 두고 끈으로 머리에 묶었는데 이것은 머리에 두는 '테필라'라 불렸다. 대다수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머리에 두었다. 통곡의 벽에서

종교적인 행위(4-7): 지기에 힘든 무거운 짐을 지워 준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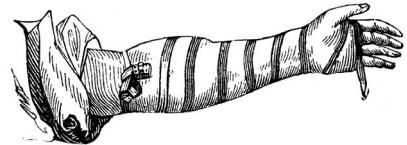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는 것(5-7)

종교인들의 특징은 유대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지금 식으로는 가운을 걸치고 로만 켈러를 입는 것

유튜브 고 옥한흠 목사님, <한국 교회를 향한 절규, 2분> 노회, 총회 등에서 회장을 하려고 애쓰는 것,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목사들, 거기에 따른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 시111:9, 요17:11, No Reverend, 목사



## 마태복음 맥잡기 25

### 마태복음 23장

지난주, 예루살렘 입성,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 함정 설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세금 문제,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율법사들의 율법 문제, 2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목사 등이 이런 악한 일을 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3-4).

#### 8-12, 한 선생, 한 아버지, 한 지도자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랍비(유대교), 지도자(master, 프리메이슨), 아버지(천주교)라 부르지 말라. 9절,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 OK, 여기서는 아버 종교, 삿17-18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미가 설명, 어머니 돈을 훔침, 돈으로 형상을 세움, 레위 사람이 옴(7), 그를 아버지로 삼음(10) 천주교의 신부, 영어는 father, 신부라 하면 안 된다.

천주교는 아버지 종교, 어머니 종교, 아기 종교이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주교는 마귀의 걸작'이라고 함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전통을 더하다가 결국은 전통을 말씀 위로 둬 교황은 아버지들의 아버지, 교황들은 악한 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였다.

2015년 9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7명의 사악한 교황들

아마존 <Dark History of the Popes>, <천주교의 유래>

많은 교황들의 인격과 도덕성은 그들이 그리스도나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교 제사장들의 계승자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교황들 가운데 몇몇은 그 행위가 너무나 악하고 추잡하여 심지어 신앙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간음, 동성연애, 성직매매, 강간, 살인, 술 취함등. '거룩한 아버지'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주교 중의 주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소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권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황이 —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주후 955년 마로지아의 손자인 요한 12세가 18세의 나이로 교황이 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더러우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그 생애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라테란 즉 로마 교황청이 창녀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며 그 결과 로마에서의 도덕적 부패는 일반 사람들의 증오의 주제가 되었다. 11월 6일 이탈리아와 독일 주교 50명으로 구성된 종교 회의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소집되었다. 거기서 요한은 교회 물건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 등으로 고소되었으며 서면으로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종교 회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일 그들이 자기 대신 다른 교황을 선출한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파문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교황 요한 12세는 자기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에게 피의 복수를 하고 말았다. 이로써 추기경 요한은 오른팔이 잘리는 비극을 맞았고, 스페이어의 오토가 주교는 채찍을 맞았으며, 로마 궁전의 고위 관리는 코와 귀가 잘리는 비극을 맞았다. 마침내 요한은 964년 5월 14일 소문에 따르면 간음을 저지르다가 마비 병에 걸려 8일 후에 죽었다고 한다.

에라스무스는 교황의 권력과 사제단 그리고 수도승들의 허랑방탕함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돈을 만지지는 않지만 술과 여자에 대해 성실하지 못함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들의 내연 관계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위 '이교도'라 부르는 자들을 다루는 잔악성에 대해 공격했습니다. 로마카톨릭 교회의 공공연한 사악함에 대항하여 저술한 소책자 『야만인들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의 많은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그는 율리우스 교황을 비롯한 여러 교황의 독재를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의 이 같은 독재는 기독교를 좀먹는 해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교황좌(座)를 제거해

버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지옥에 간 것으로 묘사한 신랄한 풍자의 글이 익명으로 배포되었을 때 그 글을 지은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자로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그런 서약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한 사제들은 창녀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단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얽매이게 될 뿐이다. 또한 그들은 첩을 둔 채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게 되면 화형에 처한다.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독신 사제로 만들려는 부모들은 그들이 어릴 때에 거세를 시켜서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성경기록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23장에 대하여 : 만일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돈을 벌기 위해 전시된 것을 성자 제롬이 본다면 무어라고 말할까? 어떤 이들은 “여기에 성 프란시스의 모자가 있다.”라고 하며, “저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겹옷이 있다.”라고 말하며, 혹은 “성자 앤의 빗이나 캔터베리의 성자 토마스의 신발이 있다.”라고 말한다. 사제들과 수도승들의 침묵과 위선을 통하여 또한 일반 백성들의 무지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 즉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일들이 —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주교들조차도 이런 멧있는 쇼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포고령을 통해 이런 불법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젊은 사제로 있으면서 로마를 여행하였다. 그는 일곱 언덕으로 된 도시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땅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룩한 로마여! 내가 그대에게 문안하노라.”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로마가 거룩한 도시가 아님을 금방 알았기 때문이다. 불법이 모든 성직자 계층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제들은 지나친 농담을 하였고 두려운 신성모독을 범하였는데 심지어는 미사 중에도 그리하곤 하였다. 교황의 궁전에서는 12명의 벌거벗은 소녀들이 저녁 시중을 들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누구도 로마에서 어떤 죄악과 소름이 끼칠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며 이 죄악들을 보고 들어야만 믿게 될 것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생겼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처럼 사악한 자들의 후어로 지금 프란체스코가 교황으로 앉아 있다. 남미 해방 신학, 좌파 근본주의 성경 신자를 증오함, 이런 사람이 김정은과 회담

아버지 종교를 하면서 독신 생활을 고집하다 보니 신부들 가운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심히 많다. 아동 성범죄가 심히 많다. 동성애자가 심히 많다. Google, gay priest, catholic priests aids <사제들의 스캔들, 사제독신제의 스캔들> ‘집 없는 자들의 대부’로 알려진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 (1912~2007)는 2005년에 출간된 <맘소사...왜?>(Mon Dieu... pourquoi?)라는 책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아 교계에 당혹감을 던져준 적이 있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어린 나이에 사제가 되어 "독신 서약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었다. 아주 가끔 이 성적 욕망에 굴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욕망이 내게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 관계를 지속한 건 아니다"라고 썼다. 또한 아베 피에르는 "내연의 아내를 두고 있는 사제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좌파들의 온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의 구현 사제단

“많은 사람들은 교황들이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교황의 역사를 보면 교황들은 과거에 교회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끼칠 것이다. 나는 한 대 로마 카톨릭 교도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2절을 잊고 사면 안 된다. 특히 교회의 목사들

### 13-15,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주

이제부터 “화가 있을지어다!”가 8회나 나온다(13, 14, 15, 16, 23, 25, 27, 29).

13절: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이들은 먼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대적하였고 이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였다.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한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  
지도자들을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14절: 과부 착취, 걸치레로 기도, 우리는 어떤가? ★★★

15절: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조심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못 가겠다,

우리의 선교 형편은 어떤가? 주님께서 무섭게 이들을 저주하신다.

### 16-22, 눈먼 안내자들

성전과 금, 이들은 돈을 탐낸다(눅16:14). 우리의 예배당 문화, 과도한 성전 건축 헌금  
제단과 예물, 예물을 탐낸다(빌3:19).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한다.

### 23-28, 십일조, 모기와 낙타

채소의 십일조(레27:30-32; 말3:10; 느10:38). 돈이 아니라 채소와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다.  
storehouse(창고)로

바리새인들은 채소와 같이 작은 것을 두고도 십일조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여겼다: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23)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25)…: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아직 교회가 없다. ★★★

십일조는 신정국가에서의 세금, 레위 지파, 이것을 내지 않으면 신정 국가 유지 불가능

하나님의 백성이 약 10분의 일을 드려야 신앙생활 유지 가능

십일조의 원리는 지킨다. 그러나 강제적 규정은 아니다. 말3:8-9를 보라.

유튜브: “헌금의 원리”

24절: 큰 것은 무시하고 적은 것에는 바짝 긴장함

25-26절: 이들의 문제,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소중히 여김

27절: 회칠한 돌무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함

### 29-33, 대언자들의 자손

이 같은 종교 행위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전통

하나님이 보내는 대언자들의 피를 흘림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인 문제

### 32절: 저주의 말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33절):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

### 34,35, 이들의 핍박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

눅11:50-51, 모든 대언자들의 피, 아벨(창4)부터 사가랴(대하24:20-22): 요아스, 여호야다,  
스가랴

예수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쓰셨다. 이 성경의 배열은 지금 성경과 다르다.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하이다.

예수님이 70인역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 36-39,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거의 우실 상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눅20:41-44)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우리는 어떤가? ★★★

너희 집의 ‘집’(38): 이스라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존중히 여기는 이 성전도 내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황폐함 그 자체이다. 그리고는 성전을 떠나신다(24:1).

3년 반의 공생애 마감, 재림하실 것 예고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단12:1; 렘30:7)를 당할 때에야 비로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사 26:12-21)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롬11:26-27; 히8:8-12).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시118:26)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한다.

그분의 재림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AD 70년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전(집)은 지어지지 못한다.

1948년 5월 독립, 1967년 6월 예루살렘 탈환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다.

어느 정도로 불신과 무지가 큰가?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난이 예고되어 있다.

주변국들의 질투, 도와주던 국가들의 기권

결국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슥12:10-13:1).



## 마태복음 맥잡기 26

### 마태복음 24장

3년 반 공생애, 종교인들의 위선과 고집, 결국 하늘의 왕국 연기(마23:36-39), 그리고 24장이 나온다. 24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석에 따라 환난 전 휴거, 환난 통과 휴거 등이 결정된다. 마24:29를 피상적으로 보면 환난 통과 후 재림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아직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었다(고전 12:13).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을 현 시대나 AD 70년 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일단 결론: 마24장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마24장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유대인들의 상황

지금까지 배운 것 총정리하는 시간

하늘의 왕국 제시, 거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끝 휴거(공중 강림 살전4, 고전15), 7년 환난기(대환난), 1000년 왕국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7년 환난기의 대환난 부분, 교회는 없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구조, 4-19장까지 교회가 없다(7년 환난기). 교회는 환난기 시작 전에 휴거

1-5, 세상 끝의 표적

1절: 성전에서 나가신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외적인 모양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

막13:1, 3을 보면 12 제자 중 하나가 물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은밀히 여쭙었다.

2절: AD 70년경의 성전의 몰락, 금을 찾으려고 돌을 모두 뒤집어 놓음

이것을 근거로 마24장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된다. 예언은 2중 3중 성취

3절은 3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표준 해석 방법

(1)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2) 주께서 오시는 때(재림 때)의 표적

(3) 세상 끝의 표적

4절: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재림의 첫째 표적(벨후2:1-4; 딤후4:1-5)

5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벨후2:1-2).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아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간다.

6-11,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은 AD 70년경의 상황이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6). 여기의 끝은 환난기의 끝이다.(13-14절에서 설명)

“민족이 민족을” 등도 말세의 상황이다.

9절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적용될 수 있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적용된다.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들이다. 마10:23과 비교, 너희(유대인)와 모든 민족들 대비

12-20,

13절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어떤 때의 끝이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다(24:14).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다(24:3).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다(24:16).

청중은 유대인이다(24:1-3).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24:15-20).

이들은 성전 예배를 드린다(24:15, 살후2:4). 여기에는 영적인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

여기의 끝이 나온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죽음이 아니다(마24:14; 21; 29).

14절은 분명하게 13절의 끝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세상의 끝임을 보여 준다.

여기는 분명하게 왕국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3:2; 4:17; 4:23; 8:12; 9:35; 10:7 등).

주역들: 계7장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14절 왕국의 복음이 민족들에게 증언되어 선포된다. 천국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 선교사들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는 다르다.

15절: 다니엘서 9장(2절, 24절, 27절), 다니엘의 70이레, 70년이 아니라 70 이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언약(단9:27), 한 이레의 한중간 언약 파기

단9:27, 11:31 최종적인 가증한 것, 실제 성전이 선다(계11:1-4; 살후2:1-6)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살후2:4)

그는 경배의 대상이다(계13).

그는 희생물을 원할 것이다(단8, 11 등)

이 희생물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계20:4)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 말세의 유대인들

산들로 도망한다(계12:1-15). 유대의 산들

지붕에 있는 자, 들에 있는 자, 아이 밴 자, 젓먹이는 자: 문자 그대로

20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 유대의 추운 겨울,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

#### 21-25, 큰 환난

21절: 큰 환난(계7:14)과 일반 환난은 다르다(행14:22; 살후1:5).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단12:1의 고난의 때,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때, 슥13:8-9

이것은 AD 70년경의 파멸이 아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21절). 히틀러 600만 명 학살

22절: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한다(31절 참조).

날들이 짧아진다: 마땅한 해석이 없다(계8:12, 넷째 천사의 나팔소리).

23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의 표적, 말세에는 은사주의의 표적 운동이 성행한다.

25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 26-31, 예수님의 재림

26절: 나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신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러므로 재림은 사망이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며 휴거도 아니고 AD 70년경의 예루살렘 멸망도 아니다.

재림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때의 끝이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다(24:14).

28절: 눅17:34-37, AD70년경의 멸망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계16:14; 19:15-20)

29절: 대단히 중요하다.

1-28절이 AD 70년에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은 1940년 전에 재림했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이며 세상 끝의 표적이다(24:3).

해가 어두워지고, 일월성신의 변화(계6:12-13; 8:12; 율2:10, 행2:20)

사람의 아들의 표적,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본다(행1:9-11).

31절의 큰 나팔소리는 계11:15의 일곱째 나팔소리로 볼 수 있다.

#### 32-35, 무화과나무의 비유

32절: 그의 선택받은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마13:36-43의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사들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여기서 천사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모은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경향이 있다(눅21:29).

성경에서는 왕국이 나무로 표현된 곳이 많이 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의 부활(1948년)로 보는 견해가 있다.

33절: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때 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34절: 이 세대를 1948년부터 시작하는 세대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 세대는 14-28절의 모든 일을 보는 세대이다(33절 참조).

35절: 말씀 보존의 약속

36-41, 노아의 날과 무화과나무의 비유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24:22).

재림의 때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 창세기 6장의 상황(5, 11-13)

두 사람, 두 여자(40-41) 눅17:34-37. 휴거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학살(계19:17-18), 남은 자들은 왕국으로

42-44,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눅12:36,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이것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우리도 휴거의 때를 모르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45-51,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지혜로운 종, 끝까지 견디는 자(24:13)

## 마태복음 맥잡기 27

### 마태복음 25장

3년 반 공생애, 종교인들의 위선과 고집, 결국 하늘의 왕국 연기(마23:36-39), 그리고 24장이 나온다(올리브산 설교). 24장은 3절, 1. 주께서 오시는 때(재림 때)의 표적, 2. 세상 끝의 표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가 없다. 교회 시대 이후 있을 7년 환난기의 내용이다.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 이후에 지상 재림

환난 통과가 아니다. 이미 교회는 휴거되어 이 땅에 없다. 주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다.

###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역시 문맥에 벗어난 해석이 난무하다. 여기의 세 비유(열 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민족) 역시 하늘의 왕국 비유, 특별히 예수님 재림 시의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25장은 여전히 올리브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24장이 끝이 아니다. 24-25장이 올리브 산 설교이다.

#### 1-13, 열 처녀 비유,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하늘의 왕국에 대한 11번째 비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기름이 떨어졌다).

핵심: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유대인)는 구원을 받는다(24:13). 깨어 있으라(25:13).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1. 이들은 처녀들이다. 한 처녀가 아니다.

2. 이들은 결혼하려고 가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려고 나간다.

3. 이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맞으러 나간다(눅12:36).

4. 모두 기름이 있었으나 몇몇 사람들은 기름을 다 썼다.

5. 이것은 여전히 유대인 배경이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으로 시작된다. “그때에”는 세상 마지막 때

6. 많은 이들이 여기의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는가? 또 돈으로 성령님을 살 수 있는가(9절)? 혹은 행위로?

7. 눈 깜짝할 사이에 등과 같은 말이 없다. 휴거가 아니다.

9. 많은 사람들의 해석: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믿지는 않고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는가?

10. 이들이 교회라면 결혼식에 가야지 결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만나러 가면 안 된다.

11. 처녀들은 누구인가?

1. 처녀들은 환난기에 등장한다(계14:1-5, 4절).

2. 신부인 교회는 언제나 단수의 처녀로 나타난다(고후11:1-3).

3. 환난기의 처녀들은 신부를 따라다닌다(시45:13-14). 여기서는 환난기 끝에 따라다닌다.

12.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 아마도 천년 왕국

13. 영적 교훈: 교훈(25:13), 깨어 있으라(24:44). 끝까지 견뎌라(24:13).

#### 14-30, 달란트 비유,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보상,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징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24:13).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이 동일하다(21, 23절).

누가복음 19장 11-27절의 므나 비유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

영적인 적용: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자기 재산을 세 사람에게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긴다

(25:15). 5, 2, 1달란트, 회계보고 하는데 5달란트(더하기 5)나 2달란트(더하기 2) 받은 사람 동일한 칭찬(21, 23),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 비유, 10므나, 열 명에게 각각 1므나씩 나누어 줌

한 사람은 1므나로 10므나, 열 도시 권세, 다른 사람은 1므나로 5므나, 다섯 도시 권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므나: 보상이 다르다.

즉 달란트의 경우 맡긴 양은 다르지만 같은 보상, 므나의 경우 맡긴 양은 같지만 다른 보상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보상의 기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였느냐가 중요하다. 그 결과는 같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므나의 경우: 동일한 복음, 동일한 과제, 하나님의 말씀 공유,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즉 증언 문제 모두가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보상은 성취도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신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일이 맡겨진다. 사도 바울처럼, 결국 더 많은 보상

31-46, 양과 염소 비유, 이것 역시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말씀

7년 환난기 이후 이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왕국을 세우려 한다(마24:29-31). 누가 들어가는가? 많은 교회들의 해석 방법

왕은 최종 심판대의 예수님

양: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

염소: 악한 행위로 지옥에 갈 자들

이 내 형제들: 선한 행위를 받는 어떤 사람

그러므로 옆의 이웃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구원의 기초가 된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 행위 구원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

1. 여기의 심판은 최종 심판 즉 크고 흰 왕좌 심판(계20:11-12)이 아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 여기는 이방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가지 못하는 자들 구분
2. 여기의 양들은 이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휴거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전3:6-14).
3. 염소들의 죄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다(42-45절).
4. 염소들은 연옥이 아니라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41절).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다. 이곳은 영존하는 불, 마귀의사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악한 영들
5.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기지 않음으로 지옥 불에 들어간다.
6. 그리스도 앞에는 실제로 양과 염소와 이 내 형제들의 세 부류가 있다.
7. 여기의 형제들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 형제들이다(마28:10).
8. 그러므로 양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잘 대우한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그 반대이다.
9. 31절의 영광의 왕좌는 다윗의 왕좌이다(마19:28; 눅1:32).
10. 이것은 요엘서 3장의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과 동일하다(욘3:1-2, 12)
11.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양들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34절).
12. 이제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왕국에 들어간다.



24, 25장의 결론: 두 장 모두가 올리브 산 설교이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를 맞아들인다(마 23:39).
2. 구약의 왕국이 성취된다.
3.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4. 우리는 표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징조는 보고 산다.
5.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https://bible.org/seriespage/28-ten-virgins>

## 마태복음 맥잡기 28

### 마태복음 26장

3년 반 공생에 마감, 왕국의 연기, 재림의 때의 징조,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 심판 어느 면에서 초림의 때에 하려던 유대인 사역 마감, 이제 이방인들을 행한 새로운 시대, 언약 등 이제 십자가로 가는 길, 부활, 승천만 남았다. 26장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

#### 1-5,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주범: 제사장들(14절 등 참조), 아이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아마도 목요일 오전 9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목요일 저녁 6시 (이전에는 수요일로 믿음)

1월 14일이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요1:29)

마12:40에 의거하여 세 낮과 세 밤이 필요하다. 주일 새벽 6시경에 부활하신다.

#### 6-13, 베다니 나병환 자 시몬의 집, 마리아의 향유 사건

한 여인이 매우 귀중한 향유를 부음, 마가와 요한은 300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임금 제자들 가운데고 분개하는 자들(8)

그러나 여인(마리아)은 왕이신 예수님께 최대의 예의를 갖추어 드리기 원했다.

주님의 말씀: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나를 장사지내기 위해 이 일을 하였다.”(10-11)

1.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가난한 형제들을 찾아보고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다.

3.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희생이 필요하다.

4.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탄생보다 훨씬 중요하다. 죽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다.

5.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냄새가 집안에 퍼짐).

6.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참된 봉사과 헌신을 비난한다.

7. 26:13은 말씀의 보존을 뜻한다. 성경이 번역됨을 뜻한다.

#### 14-16,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 Judas Iscariot, ‘Keriot’(케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다.

케리옷은 요르단 동쪽 시리아 지방, 유다는 그 지방 출신의 반(半)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셨다(요6:70-71).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15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딤후6:10).

유다는 은 서른 개를 받음으로(15) 자기도 모르게 대언을 성취함(슌11:13).

은 삼십 세겔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 값이다(출21:32).

#### 17-20, 무교절의 첫날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구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임

#### 21-25, 유월절 식사

그들이 먹을 때에(21, 26절)라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도 식사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다(요13:2).

#### 26-30, 주의 만찬 제정, 성만찬이 아니다. 성경적 이름 그대로 주의 만찬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심

신약 교회의 두 가지 규례 중 하나: 침례와 주의 만찬, 둘 다 주님의 죽음, 부활과 관련이 있음  
주의 만찬의 해석: 성경과 천주교는 극과 극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화체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우리의 믿음: 빵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상징한다. 피는 곧 생명이다(창9:4; 레 17:14).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

천주교회에서는 특히 요한복음 6장 56, 58 등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63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잔을 집으시고 마시라고 하신다. 그러면 잔이 그분의 피인가? No.

예수님의 몸이 12제자의 수대로 12개로 쪼개졌는가? No.

포도주인가 포도 주스인가? 포도주는 누룩으로 발효시킨 것

그러나 여기서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것(29절), 사65:8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음.  
신32:14, 새 포도즙은 곧 순수한 피이다.

영어 wine은 동형이의어, 포도주, 포도즙, 예루살렘 여행 0% 와인(주의 만찬 용)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한다: 무교절

그래서 빵과 포도즙 모두 누룩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제자들은 빵과 잔에 다 참여하였다. 천주교회는 빵만 준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이심을 보이는 것이다(고전11:26).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 히9:16-17, 신약은 엄밀히 말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성경 마26:28은 큰 문제가 있다(막14:24도 같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new)이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 주님의 사역이 무용지물,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여시는 것이 없어진다.

천주교 사본들은 '새' 삭제, 왜, 아직도 제사장 체계,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다. NIV NASB 등  
천주교는 주의 만찬을 미사라고 부른다.

카톨릭의 일곱 성사: 네이버 지식 사전

카톨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의식.

(1) 미신자에게 베푸는 성세성사(聖洗聖事), (2)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견진성사(堅振聖事), (3)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聖體聖事), 이것이 미사이다. (4)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告白聖事), (5)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病者聖事), (6) 교회의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성사(神品聖事), (7) 혼인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의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婚姻聖事)를 말한다.

카톨릭의 미사란 무엇인가?

미사는 피 없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다. 단번 속죄 부인(히10:11-14)

대다수 천주교인들의 특징:

1. 성경을 최종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교회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
3. 그래서 로마의 수장이 성경을 해석한다.
4. 로마의 교황은 성경과 반대로 해석한다.
5. 천주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6. 이렇게 되면 그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7.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요일5:13; 딤후1:12; 요5:24, 살전5:23-24).
8. 결국 오랜 교회 생활 끝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open communion, closed communion, 참가자들의 연령 제한, 주의 만찬

그들이 노래를 한 곡 부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시편 113-114편을 노래하고 끝난 뒤에  
115-118편을 노래하였다. 총 6편의 시편은 '찬양하라'가 주제이다. 할렐 시편

31-35, 제자들이 실족할 것 모두 부인

31절: 기록된바(슌13:7), 이 경고는 귀먹은 자들에게 떨어졌다.

12제자가 모두 베드로처럼 대답하였다(35절). 다만 요한만 용감하게 나아갔다.

32절: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요21:1-8; 막16:7). 이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

베드로의 항변(33절), 34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성경 말씀의 예언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미리 아시고(요21:1-5)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심.

### 36-46, 겐세마네

겐세마네: 뜻 올리브기름 짜는 기계, 예수님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 짜지는 곳(눅22:43-44).

진정한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39절) ★★★

고독한 기도, 순종하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 아버지께

여기의 잔은 무엇인가?(39)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No.

1. 예수님은 어디서 죽는가에 대해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2.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다(히12:2; 골2:15).
3. 그분은 육체적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려 하셨다(39절).
4.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죄로 변한 예수님에게 부어진 진노(고후5:21)
5. 이 기도는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였다(요18:11).

계20장의 둘째 사망은 곧 혼의 사망이므로 예수님은 겐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그것의 맛을 보셨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갈보리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겐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기시고 그만두려는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다.

### 47-52, 예수님의 체포

53-58: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순순히 응하셨다(비교, 마16:22).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신다.

12군단의 천사들, 보통 한 군단은 6,000여 명, 72,000명

왕하19:35 천사 하나가 185,000명을 죽임

그럼에도 참으시고 성경 기록을 이루심

58절, 베드로는 몰래 멀리서 그분의 뒤를 좇음, 우리의 모습을 봄

### 59-68, 대제사장의 심문

거짓 증인을 구하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음(막14:56).

무엇을 묻는가?(63),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딤펴전3:16; 요3:16).

64절: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재림(마24:30,31)

65, 66절: 신성모독

### 69-75,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요18:15,16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감

69절: 그때에 한 소녀가 물음, 베드로의 1차 부인, 베드로는 마26:31, 34을 잊었다.

71절: 현관에서 다른 하녀가 물음,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함(72절).

73절: 네 말투는 갈릴리 말투(막14:70). 내가 너를 동산에서 보았다(요18:26), 말고의 친족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함. 수탉이 울. 눅22:61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를 바라봄.

75절: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

구원받은 성도의 제자의 길 실패, 그럼에도 주님은 부활 후 그를 다시 세워 주신다(요21) ★★★



## 마태복음 맥잡기 29

3년 반 공생에 마감, 왕국의 연기, 재림의 때의 징조,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 심판 어느 면에서 초림의 때에 이루시려던 유대인 사역 마감, 이제 이방인들을 행한 새로운 시대 십자가로 가기 전 주의 만찬 제정, 갯세마네의 기도, 배반당해 붙잡힘, 베드로의 부인

### 마태복음 27장

#### 1-10: 가롯 유다의 죽음

1, 2절: 아침이 될 때까지의 자세한 일들은 눅23, 요18,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3-8절: 유다의 자살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듯하다(3, 4절).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오래 전에 알았다(마12:14; 21:39, 45; 26:15 등).

어쩌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받기 전에 기적을 행하고 왕국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어쨌든지 그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무죄한 피(4)를 손에 묻혔다.

그는 뜻을 돌이켰다(3절, 영어 repented himself). 180도 돌아서지는 않았다.

고후7:9-11,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

베드로: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겸손함(요21:15),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함.

내가 죄를 지었노라(40): 파라오, 발람, 다윗, 탕자

두 종류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유다, 종교 행위)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것(베드로): 주님께로 이끈다.

무죄한 피: 유다 자신의 말, 이 피는 하나님의 피(행20:28)

유다가 은 서른 개를 성전에 던짐(슥11:13). 유다의 자살(행1:15-20).

9-10절: 대언자 예레미야기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슥11:13, 렘32:6-9 17세겔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과 그가 외친 말씀이 있다. 여기는 후자이다(슥7:7).

#### 11-18: 빌라도와 바라바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셨다.

그때에 비난의 소리가 들렸다(눅23:1-5).

민족을 그릇되게 하지 않(2)고 오히려 고쳐 주었다(마8-11).

공세 내는 것을 금하고(2), No(마17:24-27; 롬13:1-7)

백성을 선동하고(5), No, 바리새인들이 함

빌라도의 말과 백성의 대답과 빌라도의 대답(요18:29-32)

32절: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행2:23)

요18:33-38절: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은’(now)이다. 이것은 나중에 있음을 의미함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 왕국의 왕임을 시인함.

진리에 대해 증언하심(37), 진리가 무엇이나?(38)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요17:17). 예수님 자신이다(요14:6)

빌라도는 세 번이나 그분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함(요18:38; 19:4, 6)

이때에 누가복음이 등장한다(눅23:6-7). 헤롯의 관할

눅23:9-12 헤롯의 질문, 다시 돌려보냄

이제야 비로소 마27:15로 돌아온다(요18:39, 40). 바라바

바라바는 강도이며 폭동을 일으킨 자였다(눅23:19).

빌라도는 어찌 하든지 이 곤경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제안을 한다(눅 23:14-16).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택하라.

## 19-25: 빌라도의 아내, 예수님과 바라바

빌라도는 엄청난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피를 보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놓아 달라고 요구할 줄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수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막15:11, 마27:20).

이에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고백한다(24).

## 26-30: 바라바를 좋아주고 예수님을 처형시킴

헤롯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낼 때 자주색 옷을 입혔다(눅23:11).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벗겼다(28).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다(29). 여기서 관은 diadem(왕의 관)이 아니라 stephanos(승리의 관)이다.

가시관의 가시는 2-3cm 길이, 갈대로 쳐서 가시로 이마를 눌러야 고정된다(사52:14).

채찍질(26): 뼈와 부싯돌이 달려 있어서 살을 떼어 낸다. 39회(고후11:24; 갈6:17).

등에서 살 조각이 떨어지고 파랗게 멍이 들며 피가 흐른다.

그런데 그분은 입을 열지 않는다(사53:5,7).

그리고는 마귀를 이기신다(골2:15).

채찍에 맞음으로, 사53:5, 뻔전2:24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백성과 빌라도는 말을 잃었다.

머리에 피가 흐르고 등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온 몸이 축 처진 채 말 없이 예수님이 서 계신다(사53:4).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백성의 말(요19:5-16)

이 사람을 보라(요19:5). 이제 끝이다. 빌라도는 이분이 범상치 않음을 보았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반대함(요19:6). “너희가 처형시켜라”: 빌라도의 말

요19:7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요5:17-18,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뜻한다.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함(19:8).

그는 스스로 세 번이나 그분이 무죄라고 했다. 아내까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1. 그는 초자연적인 인물이다. 2. 아내가 꿈을 꾸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었다.

요19:9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미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있다.

빌라도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묵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빌라도의 자기 과시 요19:10, 예수님의 대답 요19:11

11절 죄가 있고 또 더 큰 죄(Sin)가 있다. 지옥에서의 형벌도 등급이 있다(마11:20-23). 천국에서의 보상도 등급이 있다(계22:12).

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도 죄를 다루지 않는다. 기독교만 죄를 다룬다.

모든 불의가 죄다(요일5:17).

이것을 깨닫고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다(요19:12).

그런데 백성이 반대한다(요19:12).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빌라도의 딜레마: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행4:19).

요19:13-15: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너희 왕을 처형하라?”(15)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15)

27:24, 25절: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뀌는 구절

소요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넘겨줌.

무죄함을 보이기 위해 빌라도는 손을 씻음(24). 유대인들의 정결례 비슷함.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24). 자기 아내의 말 참조(27:19)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25). 그들의 운명이 결정됨(출12:6의 성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확고한 증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행20:28).  
 그의 피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AD70-AD 1948, 말3:6, 출3:3 불타는 떨기나무  
 십자가에서 주님은 눅23:34의 말씀을 하신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일을 보릅니다.  
 그리고는 행1-7장까지의 일을 통해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다.  
 AD 135년 하드리아안 황제 58만 명의 유대인 학살  
 1006년 유럽에서 천주교의 세례에 응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됨  
 102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 추방됨  
 1272년 에드워드 1세 영국에 유대인들 재산 몰수, 16500명 추방  
 1492년 천주교의 도미니칸 파 종교재판을 통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추방  
 1560-1600년,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당함  
 제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약 600만 명이 학살당함  
 유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이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대신 속죄, 몸의 부활의 증거이다.  
 대환난기가 그들을 기다림: 슥13:8-9, 마24:21

## 마태복음 맥잡기 30

오늘 30번째, 마지막

지난주, 가롯 유다의 죽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문 받음, 유대인들의 죄

오늘 27장 후반부와 28장, 골고다의 길, 십자가 처형, 부활, 위임의 말씀

31-37절, 장면이 바뀌면서 골고다에 이르는 과정이 나온다.

처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심(요19:17).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막15:21; 롬 16:13)

약 15-20분 정도의 여정, 비아돌로로사(십자가의 길), 예루살렘 북쪽, 성문 밖의 갈보리(히13:12) 지금 그 길을 가면 상인들이 즐비하고 천주교의 신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골고다에 다다른 뒤

마27:34절: 쓸개 섞은 식초, 막15:23(물약을 섞은 포도즙), 이것은 정죄 받은 자의 음료, 그러나 주님은 드시지 않았다. 시69:21의 예언

십자가에 먼저 고소 명목을 달았다(눅23:38): 히브리어(종교적, 바리새인), 그리스어(지적, 사두개인), 라틴어(정치적, 해롯 당원), 거기에 기록된 말

마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누가23:38: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요한19:19: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종합: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땅에 놓고 범죄자를 그 위에 누인 뒤 못을 박고 몇 사람이 들어서 구덩이에 세웠다.

이쯤 되면 범죄자는 피를 많이 쏟고 못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엄청난 아픔, 갈증, 뼈들이 관절에서 나옴.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다(요1:29).

38-44절, 두 명의 다른 강도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함

45절 6시에서 9시: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막15:33; 눅23:45). 이것은 일식이 아니다(현대 역본들은 일식이라고 함).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22:1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자신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삼위일체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딤후2:5)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 순간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죄가 되신다(고후5:21; 갈3:13).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하고 외치신다.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출12), 대신 속죄 희생물(히9:28; 벰전2:24)

“내가 목마르다”(요19:28-30).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옥의 뜨거운 맛을 다 보셨다.

50절, 숨을 거두시다

요19:30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을 다 이루셨다. 구약의 희생예물 제도가 영원히 한 번에 다 끝났다.

이것을 반복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카톨릭의 미사, 히10:10-14

51-53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무덤이 열림, 신약 시대 열림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려 은혜의 왕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음.

구약 시대의 막이 내림, 너무 중요해서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됨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남.

55-61, 아리마대 요셉,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마리아 수가 성의 여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나인

성의 과부 등, 또 많은 여인들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적은 없음.

아리마대 요셉: 확신으로 인해 결국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냄, 부자의 무덤(사53:9)

#### 62-66 무덤을 철저히 지킴

62절: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크게 노심초사하는 자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기득권자들)

빌라도의 대답: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굳게 지켜라.

28장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무덤은 소유주가 돌로 막았고 정부가 봉인을 했고 군사들이 보초를 섰다.

#### 마태복음 28장

1-4절, 막달라 마리아 등이 기대하지 않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와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됨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 사두개인들이 많고 이들이 종교통합의 주체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타원의 두 센터이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전15:12-19).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에 절대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었다(행1:2-3)

1. 몸이 없어졌다.

2. 몸을 찾기에 혈안이 된 병사들이 찾지 못함(마28:15).

3. 500여 명이 그분을 봄(고전15:5-8).

4. 그분의 몸을 훔쳐가려면 로마 군인들을 다 잠재워야 한다(마28:4).

5. 그분의 몸을 훔쳐가려면 적어도 2-30분 동안 수의를 풀어야 한다(요20:5,7).

6.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훔쳐갔다면 로마 정부와 산헤드린 공회는 큰 망신을 겪는다.

7. 영체로 일어났다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눅24:42)

8. 그분은 살과 뼈가 있었다(눅24:39).

9. 그분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증언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의 것들을 약속한다.

1. 첫 열매: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이와 같다(롬6:5, 8:11; 고전15:20-50; 빌3:20, 21).

2. 우리의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눅24:39).

3.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다(막달라 마리아. 손대지 말라.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 채 2시간도 안 걸린다. 요20:17; 마28:9).

4.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을 감출 수도 있다(요20:19; 눅24:31).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의 사실들을 확증한다.

1.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심판(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전에 부활이 있다.

2.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부활이다.

3. 이 부활은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4.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 할 것을 확증한다.

5. 어린아이와 같이 정결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분의 일을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귀한 것들(고전2:9)을 얻을 수 있음을 확증한다.

6절: 천사의 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부처, 공자, 모하메드, 조로아스터, 니체, 버트런드 러셀, 볼테르, 다윈: 썩은 무덤을 자랑한다.

눅24:5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요10:10)

#### 10-15절, 거짓말 유포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많은 돈을 줌.

16-17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 의심하는 자들도 있음(요20:21-28).

요한복음 20, 21장에 그분의 부활 이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됨

18-20절,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위임의 말씀

18절: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된다.

1.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롬13:1-6).
2. 이 권능이 그분의 아들에게 주어졌다(요5:22, 23, 26, 27).
3. 아들은 이 권능을 위임한다.
4. 영적인 권능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엡1:19; 요1:12; 고후6:7 등)

19절 그러므로,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므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삼위일체, 이름: 권위를 뜻함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의 끝

마태복음 결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

침례자 요한, 공생애 시작, 하늘의 왕국 선포,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메시아 입증  
그들의 불신,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내 교회를 세운다.

최종 선언 마23

24-25장은 재림 때의 일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구약 철폐, 직통 나아감

부활하심, 절대 확실한 증거, 그리고 대위임의 말씀, 다시 오신다.